

February
2010. 2

2010년 중국경제에 대한 5가지 질문 / 충남의 최근 수출입 동향과 통상전망 / 기후변화와 저탄소 경제의 도래
경제동향 경기, 산업활동, 소비 및 물가, 수출입, 고용, 금융, 건설 및 부동산 / 경제일지 / 경제지표



충청남도



충남발전연구원

월 간

충/남/경/제

Chungnam Economic Trends

HEART OF KOREA CHUNGCHONGNAM-DO HEART OF KOREA CHUNGCHONGNAM-DO
Chungnam Economic Trends

HEART OF KOREA CHUNGCHONGNAM-DO

Chungnam Economic Trends

Chungnam Economic Trends Chungnam Economic Trends Chungnam Economic Trends Chungnam Economic Trends

HEART OF KOREA CHUNGCHONGNAM-DO

Chungnam Economic Trends Chungnam Economic Trends Chungnam Economic Trends Chungnam Economic Trends

2010년 2월호

발 행 인 이인화, 김용웅
편 집 위 원 이재관, 권희태, 조경연, 맹부영, 이인배, 한무호, 신동호, 김양중
집 필 진 총괄 백운성
경제동향 백운성, 신동호, 김양중, 김윤아, 권덕희
경제일지 하광학, 김범수, 박용진
외 부 집 필 진 정상은(한남대학교), 장현숙(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발 행 처 충청남도 · 충남발전연구원
주 소 314-140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101번지
연 락 처 (041) 840-1114, 1168 팩스(041) 840-1189

월간 충남경제의 파일은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와
충남발전연구원(<http://www.cdi.re.kr>)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ISSN 2093-0844



Chungnam Economic Trends

CONTENTS

ISSUE	2010년 중국경제에 대한 5가지 질문	3
FOCUS	충남의 최근 수출입 동향과 통상전망	13
	기후변화와 저탄소 경제의 도래	21
경제동향	경제동향 (총괄)	31
	1. 경기	5. 고용
	2. 산업활동	6. 금융
	3. 소비 및 물가	7. 건설 및 부동산
	4. 수출입	
경제일지	충남경제일지	51
경제지표	1. 국내 주요경제지표	57
	2. 충남 주요경제지표	59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60
부록	1.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월별추이	74
	2. 경기종합지수 주요용어 해설	76



Chungnam Economic Trends

ISS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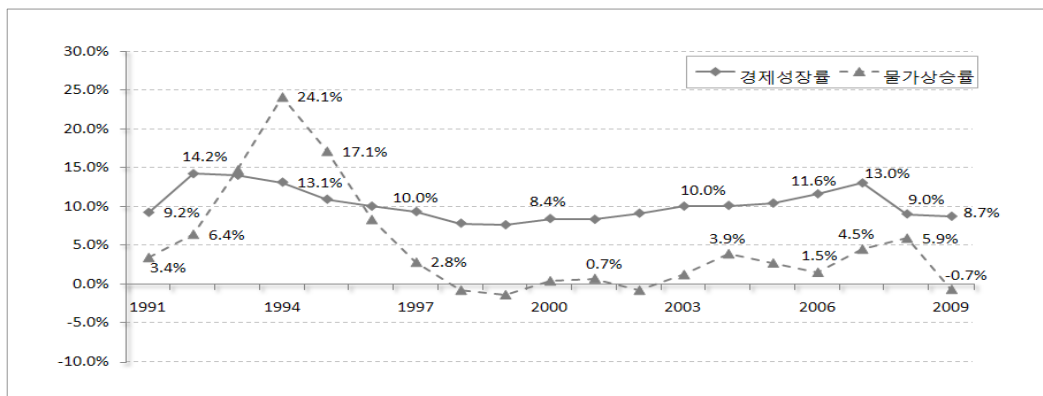
2010년 중국경제에 대한 5가지 질문

정 상 은 | 한남대학교 중국통상학부 교수

1. 명실상부한 'G2'로 부상한 중국경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전세계가 극심한 경기침체의 몸살을 앓은 2009년에 중국경제는 성장률 8.7%라는 호성적을 기록하였다. 이는 중국정부의 연초 목표치였던 8%는 물론 해외 주요 기관의 예상치 8.5%를 뛰어 넘는 놀랄만한 성과이다. 경제성장률 8.7%와 함께 소비자물가상승률 -0.7%는 중국경제가 2001년 WTO 가입으로 글로벌 경제에 정식으로 편입된 이후 지속한 중국판 신경제라 불린 ‘고성장-저물가(9%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물가상승률은 2% 이하로 통제)’ 구조로 회귀했다는 측면에서 성장률 9.0%와 물가상승률 5.9%를 기록했던 2008년보다 오히려 양호한 경제지표이다.

중국의 경제성장 추이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2009년 1/4분기에 6.1%로 바닥을 찍고, 2/4분기 7.1%, 3/4분기 8.9%, 4/4분기 10.7%로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2010년 들어서는 1월 12일에 은행지급준비율을 인상하는 출구전략을 전격 발표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걱정보다는 조기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경기회복세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이쯤 되면 중국이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가장 먼저 탈출한 국가가 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2009년은 중국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함께 명실상부한 'G2'의 일원으로 부상한 원년이 될 것이다. 2009년 중국의 GDP는 4.9조 달러로 일본(5조 950억 달러)에 이어 3위를 기록했고 중국이 최근 수년간 통계를 대폭 상향 수정해왔음을 고려하면 2009년에 이미 일본을 추월했을 가능성이 크다. 2009년 전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중국의 기여율은 50%를 상회하여 세계경제 성장 기여도 측면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 수출도 독일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되었으며 외환보유고는 2009년말 현재 2조 3,992억 달러로 일본의 2배가 훨씬 넘는다.

주요국의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억달러)

순위	국가	외환보유액	순위	국 가	외환보유액
1	중국	22,726	6	한국	2,542
2	일본	10,526	7	홍콩	2,269
3	러시아	4,134	8	브라질	2,216
4	대만	3,322	9	싱가포르	1,820
5	인도	2,803	10	독일	1,704

자료: 한국은행, 2009년 9월말 기준.

중국경제의 빠른 회복세에는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조치와 과감한 소비진작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중국정부는 2008년 11월부터 4조위안(700조원)에 달하는 경기부양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가전하향(家電下鄉: 농촌거주자의 가전제품 구매시 보조금 지급), 기차하향(汽車下鄉: 농촌거주자의 승용차 구매시 보조금 지급)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소비 진작에 크게 기여하였다. 2010년에도 지난해 실시한 경기부양조치와 소비진작책의 대부분이 지속되는데다가 세계경기의 완만한 호전으로 수출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국경제가 성장세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2010년은 중국경제에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

이 큰 해라는 점에서 반드시 낙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소비부의 지속 여부, 위안화의 평가절상, 출구전략의 시기와 강도, 정부주도형 경기부양의 부작용 등 경제 곳곳에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 요인이 표출되면 경기회복세가 둔화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2010년 중국경제에 대한 5가지 질문을 통해 중국경제의 불확실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2010년 중국경제에 대해 조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중국경제의 변화에 따른 한국경제와 충남경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고자 한다.

2010년 중국경제에 대한 질문 1: 두 자리 수 성장세 재현되는가?

중국의 경제운영과 관리를 총결산하고 향후 경제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가 2009년 12월 5일부터 7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공산당(黨)과 국무원(政)의 최고 지도부가 참석하는 경제부문의 최고회의이다. 동 회의에서 2010년 경제운용에 대한 6가지 과제가 제시되었는데 그 중 첫 번째 과제는 빠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이었다. 나머지 5개 과제는 경제구조조정, 농촌문제 해결, 경제체제 개혁, 수출 회복, 민생개선 및 사회 안정의 순이었다. 후진타오 지도부는 집권 이후 질적 발전, 구조조정, 빈부격차 축소 등을 강조해 왔으나 매년 첫 번째 과제는 변함없이 고성장 지속이었다.

이처럼 중국지도부가 경제성장 지속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데다가 2008년 11월부터 시작된 강력한 경기부양책과 소비진작책이 2010년에도 지속되기 때문에 지난해 성장의 모멘텀이었던 투자와 소비는 금년에도 견조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경제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수출이 금년에는 10%대의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고 지난해 성장률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까지 감안하면 금년 경제성장률이 두 자리 수를 회복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중국사회과학원은 2010년 성장률을 9%, 모건스탠리는 10%로 각각 전망하였다.

2010년 중국경제에 대한 질문 2: 소비부는 지속될 것인가?

최근 수년간 글로벌 소비부진과 별개로 중국의 소비시장은 호황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의 소비증가율은 2008년에 21.6%로 개혁개방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데 이어 경기침체가 심각했던 2009년에도 15.3%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중국의 민간소비 추이

(단위 : 억위안,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금액	52,516	59,501	67,177	76,410	89,210	108,488	125,087
증가율	9.1	13.3	12.9	13.7	16.8	21.6	15.3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특히, 2009년에 중국정부가 파격적인 소비진작책을 내놓은 가전, 승용차 등 내구재 소비는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귀메이(國美) 등 가전양판점은 지역과 상관없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며, 대도시에 국한되었던 마이카 붐이 중소도시와 농촌으로도 확대되어 승용차에 대한 정보는 전국민의 관심사로 부상하였다. 중국정부가 소비촉진조치의 대부분을 2010년에도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소비심리를 억제해온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을 확대 실시하는데다가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호전까지 고려하면 2010년에도 소비가 호조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사회과학원은 2010년 소비성장률을 2009년보다 높은 16.4%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소비붐이 지속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소비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의 소비붐은 소비자의 구매력 상승으로 소비기반이 확대된 것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소비촉진조치에 힘입은 일회성 결과에 가깝다. 중국인민대 류위안춘(劉元春) 교수는 “소비 상승 추세는 대대적인 소비보조금 시행에 따른 내구소비재 판매 확대의 결과일 뿐, 국민의 일상 소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반소비재 매출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고 소비동력도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하였다. 중국의 소비붐이 지속가능한지는 2010년이 아닌 소비보조금제가 끝나는 2011년 이후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2010년 중국경제에 대한 질문 3: 위안화는 평가절상되는가?

위안화 환율은 2005년 7월 환율개혁으로 고정환율제를 관리변동환율제로 바꾼 이후 3년 여간 달러 대비 20%정도 절상되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9월 이후 지금까지 달러당 6.82~6.84 수준에서 거의 고정되었다. 중국정부가 의도적으로 환율을 관리한 것이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2조 4,0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 대규모 무역흑자 등으로 달러가 넘쳐나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히 통제하지 않으면 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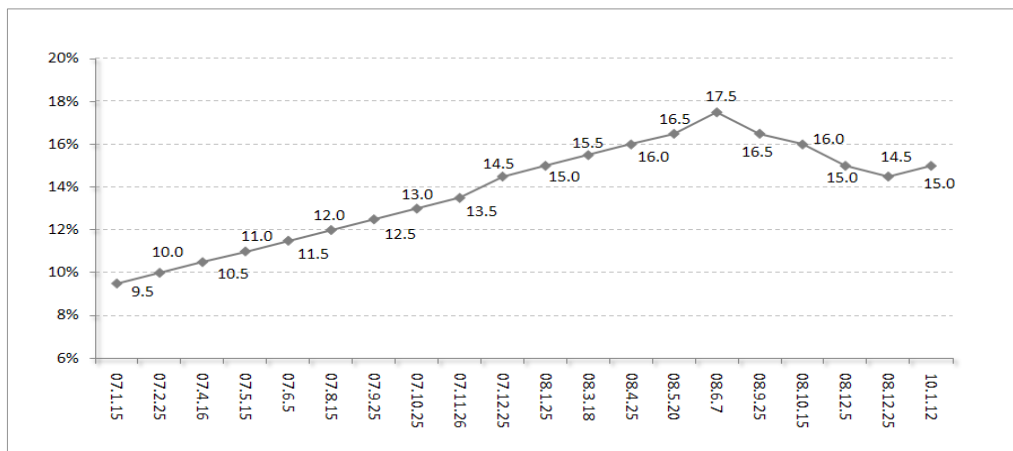
화는 절상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지난 16개월간은 국내적으로 경기침체, 수출부진 등으로 위안화 절상을 용인할 수 없었으며 대외적으로도 경기회복을 위해 중국의 도움이 절실한 구미국가들이 절상을 압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기호전, 수출회복세 등이 가시화되는 2010년에는 대폭은 아니지만 중폭에 해당하는 수준의 절상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경기회복과 수출호전, 대규모 무역흑자 등으로 절상을 막을 명분도 없으며, 구미국가들의 절상압박도 본격화될 것이다. 최근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강력한 위안화 절상 압력은 국제적인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수입 원자재가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고려하면 중국경제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절상은 필요하다. 중국사회과학원이 2%, 세계은행 3%, JP 모건이 5% 이상의 절상을 예측하는 등 3~5%의 중폭 절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

2010년 중국경제에 대한 질문 4: 출구전략은 어떻게 구사할 것인가?

금년 1월 12일 중국인민은행이 은행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상하면서 전세계 증시가 폭락하는 등 중국의 출구전략이 세계경제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였다. 중국이 소폭이지만 지급준비율을 조정한 것은 2008년 12월 25일 0.5%포인트 인하한 이후 13개월만이며, 상향 조정은 2008년 6월 7일 이후 19개월 만에 단행한 조치이다.

중국의 법정지급준비율 추이(2007년 이후)



자료: 중국인민은행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조치는 2009년 4/4분기 성장률이 10.7% 달하는 등 중국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조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조치이다. 지난해에 통화(M1)공급량이 32.4%나 증가하고, 신규대출도 97% 증가하는 등 심각했던 유동성 과잉은 금년 들어서도 개선의 조짐이 없다. 거기에다가 유동성과잉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를 지속하던 물가가 최근 오름세로 돌아서자 중국정부와 인민은행은 경기부양 과정에서 급증한 시중유동성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 2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던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11월 0.6%, 12월 1.9% 상승으로 반전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낮은 단계의 긴축조치를 단행한 것은 시장에 과열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준다는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적절한 출구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문제는 추가 긴축의 시기와 강도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정부의 긴축강도는 시장의 우려만큼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강력한 긴축조치는 중국내수 위축과 교역감소로 세계경기회복세를 지연시키고 이는 중국에도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리이닝(厲以寧) 베이징대 교수도 “중국경제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이며 현재 물가가 오르고 있다지만 단기적으로 긴축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억제에는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견고하지 않은 경제 회복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른 긴축 조치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중국의 최근 긴축행보는 지난해 이례적으로 급증한 통화량을 조정하여 경기회복세를 장기간 지속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며 전반적인 통화기조는 여전히 경기에 우호적이다. 중국정부는 금년도 통화공급 증가율 목표치를 16~18%로 설정했는데 이는 2009년(32%)보다는 낮지만 통화긴축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인플레이션 추이와 자산시장 동향이 향후 긴축정책의 관건이 될 것이며 부동산, 에너지 등 일부 분야의 과열을 억제하고 인플레이션 우려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경기상황에 따라 2010년 중반 이후 소폭의 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을 부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중국경제에 대한 질문 5: 국영경제 시대가 도래하는가?

개혁개방 이후 30년간 중국경제는 민간부문이 꾸준히 성장하여 국유부문을 압도(民進國退)해왔으나 2009년 일년만에 이런 상황이 돌변하였다. 경기부양책 실시에 따른 민간부문의 위축 현상(國進民退)이 만연한 것이다. 도시고정자산투자 중 민영기업

비중은 2008년 73.1%에서 2009년 57.1%로 감소했으며 철강, 항공, 금융 등 주요 산업에서 국유기업이 민영기업을 인수하는 등 국유기업 주도의 구조조정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山東철강(국유)의 日照철강(민영) 인수, 四川항공(국유)의 鷹聯항공(민영) 인수 등 지난 10여년간 민영기업이 부실 국유기업을 인수하던 양상이 180도 바뀐 것이다.

국유기업으로의 집중은 규모경제 효과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국유기업의 비효율로 성장과 고용에 대한 기여도가 작다는 부정적 측면이 더욱 크다. 2009년 상반기의 경우 국유기업의 부가가치증가율은 1.7%로 17.1%를 기록한 민영기업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투하자본 1억 위안 당 국유기업의 고용인원 수는 254명, 민영기업은 1,016명으로 국유기업의 성장은 고용 확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도 국유경제의 주도시대는 확대되어 중국경제의 비효율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크다. 국유기업이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까지 지속되는 4조위안 경기부양 프로젝트의 90%를 국유기업이 독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확보한 국유기업들은 민영기업 인수합병을 더욱 확대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된다.

2. 중국경제 불안요인에 따른 리스크에 대비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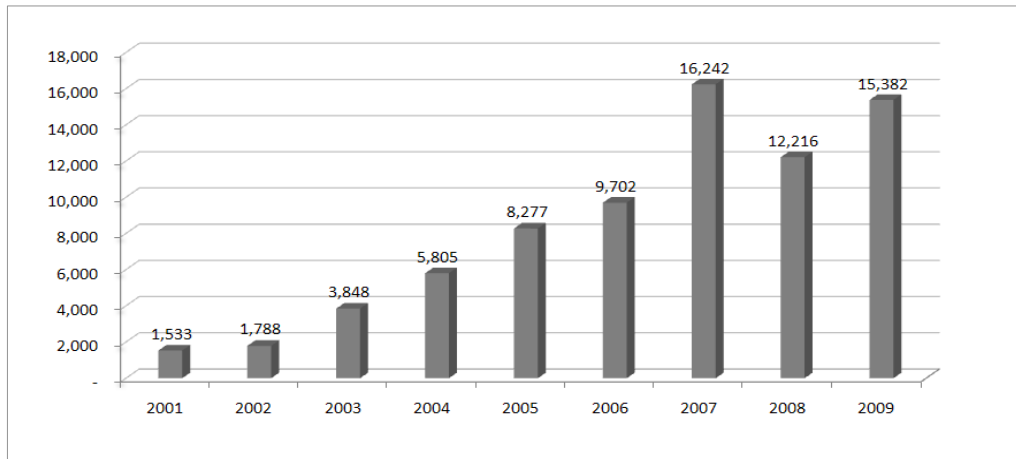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중국에 대해 바뀐 인식 중 하나는 앞으로는 중국경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장밋빛 전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일 것이다. 물론, 중국경제가 지표상으로는 여전히 양호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정부가 지출을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겨우 끌고 가고 있는 양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지대한 타격을 받은 선진국들의 수요가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이 2000년대 중반처럼 20~30%의 고성장을 수년간 지속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중국경제가 향후에도 고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출이 아닌 내수 신장이나 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내수 신장은 단기간 내에 크게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투자가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경기부양은 길어야 2~3년이라는 한계가 있다. 중국경제가 2010년보다는 경기부양책의 시효가 끝나는 2011년 이후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성장세 급락이 재현될 우려

가 큰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수출부진과 경제구조 전환에 대비한 한중 분업구조의 재점검, 내수시장 공략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충청남도는 중국경제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의 대중국 수출추이

(단위: 백만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충청남도의 대중국 수출품목이 액정디바이스, 메모리반도체 등 중국의 내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인 점을 고려하면 중국 소비시장의 성장과 변화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 중국 소비시장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내륙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내수시장에서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중국경제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가동하여 리스크요인의 변동에 실시간 대응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무역협회, “최근 중국 금융긴축의 영향과 대응과제”, 2010

한국은행, “향후 중국의 물가여건”, 2010

한국수출입은행, “중국 경제의 2009년 회고와 2010년 전망”, 2010

Dr Steven Dunaway, “Global imbalances and prospects for the world economy”, 2010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www.kita.net)

중국인민은행(www.pbc.gov.cn)

중국국가통계국(www.stats.gov.cn)



Chungnam Economic Trends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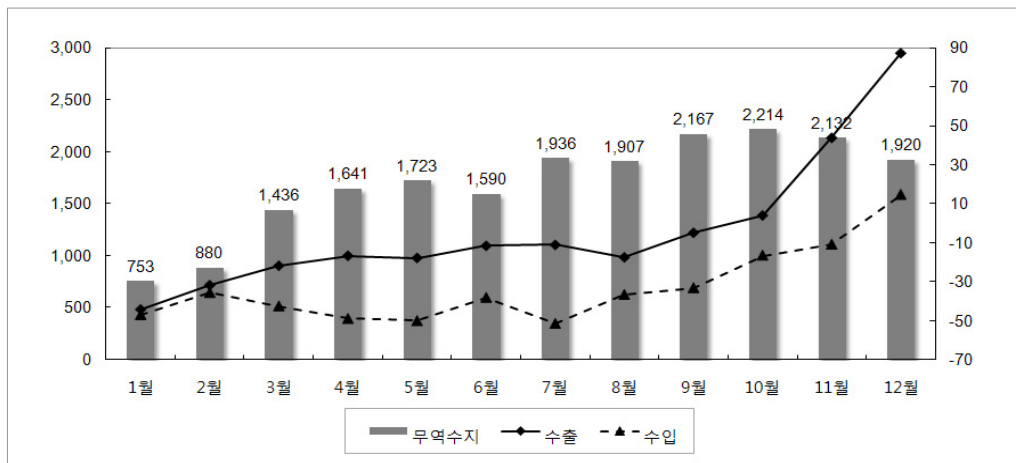
충남의 최근 수출입 동향과 통상전망

이 재 관 | 충청남도 투자통상실장

1. 충남의 최근 수출입 동향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교역량 감소는 물론 각 나라마다 내수·소비·설비 투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경기침체의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9년 3분기를 기점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충청남도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여건보다 더 양호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충남의 수출입 추이(2009년)



지난해 충청남도의 총 수출액은 394억2,800만 달러, 수입은 191억2,900만 달러로 전년대비 각각 8.2%와 35.3%의 감소를 보였다. 경기 침체여파로 지난해 전 세계는 28%, 우리나라도 13.5% 감소를 보였지만 우리 도는 8.2%만 감소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악재 속에서도 충청남도는 지난해 전체 교역 규모면에서 585억5,700만 달러로 전국 교역량의 8.5%를 차지하였으며, 수출순위 또한 2008년 5위에서 한 단계 상승하였다. 무역수지 역시 202억9,900만 달러로 지난해 보다 69억1,900만 달러가 증가하여 전국 무역흑자 404억4,900만 달러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2009년 충남 수출품목을 살펴보면 평판 디스플레이, 반도체, 석유제품, 컴퓨터 제품 등이 충남의 핵심 수출산업으로 세계시장에서 확고하게 뿌리내렸음을 알 수 있다. 평판 디스플레이는 중국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지난해보다 19.4% 증가한 145억 달러를 기록해 수출 1위 자리를 굳혔으며, 반도체도 기술 우위와 시장에서의 수요 회복으로 2008년보다 3.7% 성장한 106억 달러를 수출했다. 이같이 충남의 수출 1위와 2위 품목인 평판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수출은 전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6.8%, 34.3%로 매우 높아 전국 IT수출을 충남이 리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그만큼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전국보다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 외 컴퓨터(16억 달러), 자동차부품(9억 달러)은 중국의 내수부양책 등을 활용해 양호한 실적을 거두었고, 철강판, 석유제품 등은 수요부진과 설비투자 감소로 2008년의 수출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채 큰 폭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또한, 2003년 최고 증가율(40.4%)을 기록하며 부동의 3위 자리를 유지해왔던 자동차 수출은 선진국 시장침체와 신용경색에 따른 대외적 요인이 작용하여 62.8%의 수출 감소율을 기록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지역별로도 금융위기 영향이 가장 컸던 미국(Δ 14.4%), 일본(Δ 26.1%) 등 선진국은 수출 감소를 보인 반면, 개발도상국 수출(중국 25.9%, 홍콩 7.9%)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중화권(중국, 홍콩, 대만) 지역으로의 수출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수출비중도 2008년 41.8%에서 2009년에는 52.2%로 무려 10.4% 상승했다.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는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의 경기변동에 따라 우리경제가 휘청거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며, 세계경제가 주목하고 있는 중국의 경기변동은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향후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EU국가 등의 수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대외무역국의 다변화에 긍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EU국가 중 매년 큰 폭의 수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슬로바키아는 2008년 18억4,539만 달러, 2009년 19억5,718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2006년부터 충남 10대 수출국가의 자리에 올라서 있는 상태다.

충청남도는 지난해 교역규모, 수출 등의 지표에서 지역 경제타격을 최소화하는 등의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적을 올렸지만,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는 중소기업의 수출 신장율과 채산성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전국 중소기업 수출증가율이 10.1%의 감소를 보인 반면, 충남의 중소기업 수출증가율은 전년대비 11.5% 증가하였다. 전국 시·도가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일 때 충남의 중소기업 수출증가율은 4분기부터 안정적인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전국 중소기업 수출증가율에 있어 1위를 기록했다. 지역의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충청남도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도별 중소기업 수출증가율 비교

(전년대비,%)

구분	충남	경기	서울	경남	인천	울산	경북	부산	대구	충북	전남	광주	전북	대전	강원	전국
증감율	11.5	-9.5	-2.8	-11.9	-7.1	-21.6	-16.8	-20.5	-14.0	-13.1	-18.2	-5.3	-3.8	-4.7	-14.3	-10.1

더욱 중요한 것은 충남 총 수출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12.9%에서 2009년 15.6%로 2.7%p 상승했다는 것이다.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출 역량과 규모,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차이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대외적인 수출여건 등은 매년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충남 중소기업 수출실적이 2000년 12억4,134만 달러를 시작으로 10여 년 만에 50배 가까운 61억6,400만 달러를 달성한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충청남도 기업지원 정책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중소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약진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2. 지난해 주요 수출 지원정책과 성과

지난 2009년 세계 경제 침체의 악조건 속에서도 도내 기업에 대한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의 다각적인 사업을 통해 우리도의 대외교역은 많은 성과를 창출했다. 이러한 결과로 도 전체 수출 394억2,800만 달러(중소기업 61억6,400만 달러, 농수산물 41억3,000만 달러, 인삼 9,260만 달러)라는 성과를 일궈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에 온갖 심혈을 기울였다.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캐나다,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싱가포르 등 전 세계 ‘틈새 수출시장’을 도내 중소 수출업체가 뚫을 수 있도록 총 10회에 걸쳐 해외무역사절단을 운영하였고, 각종 해외유명 전시박람회에 54회(개별 42, 단체 12) 참가를 지원하여 무역사절단에 참여했던 63업체가 한 해 동안 71백만 달러의 수출 성과를 올렸고,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을 받은 66업체들도 70백만 달러의 수출성가를 올렸다.

아산의 D社에서는 충남도에 감사 서한문을 보내, “수출을 위해 씨 뿌린 효과가 단 번에 나타나기는 힘들지만 충남도 사업 참여 이후,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출성사를 위해 매진하여 작년대비 51% 수출성장을 할 수 있었다”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충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평을 주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행정인턴을 활용한 수출 전담인력 지원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해외마케팅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도내 13개 중소기업에게 17명의 우수한 수출 전담인력들을 투입하여 7개월간 무역실무 등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해 업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내수위주의 중소기업에게도 수출 길을 열어주는 「수출기업육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수출전문 컨설팅기관을 활용, 수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었으나, 그 방법을 몰라 내수에만 치중해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2006년부터 연평균 30업체를 지원해 왔다. 2009년도에는 33업체가 참여하여 업체의 Needs(필요)에 맞게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제공, 해외 유명 검색엔진 마케팅 서비스 제공, 전략지역 현지 토털마케팅 서비스 제공 등으로 나누어 수출기업 육성사업을 추진, 대한민국의 수출 다크호스를 등장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였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충남도만의 특색 있는 수출전략산업의 마케팅 공략으로 말레이시아 콰라룸푸르에서 충남 우수상품 전시상담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지자체의 수출지원 활동에 대한 시금석 역할을 한바 있다. 지난 11

월 11일부터 12일까지 동남아시아의 중심 인도차이나 반도의 한복판에 위치한 말레이시아 콰라룸푸르 이스타나 전시장에서 「충남 우수상품 전시상담회」를 개최하여 수출상담액 42업체 7,732만 달러, 수출계약액 18업체 763만 달러, 바이어 495명, 일반 관람객 1,500명 참관이라는 성과를 거두었고, 지금까지도 업체간에 거래 성사를 위해 지속적인 가격협상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말레이시아 충남 우수상품 전시 상담회」의 경우,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해오던 해당국가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한 전시 상담회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사업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동남아 인근 10여 개국에서 유망·유력바이어를 초청하고, 참가업체가 그동안 관리해 오던 바이어들도 초청대상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참가업체의 반응 및 만족도가 그 어느 때보다 좋았다.

그 외에 ‘해외 지사화 사업’은 유망 중소기업이 세계 97개소의 KOTRA 현지무역관을 활용하여, 수출거래선 발굴부터 시장조사 및 거래성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활동을 1:1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당진의 H사(디젤엔진발전기)는 “최근 두바이와 알마티 지역에 거래선 확보와 인콰이어리를 통해 1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며, “중동지역 시장개척을 위해 수차례 개인적으로 방문하였어도 쉽지 않았던 일이었으나, 금년 충남도에서 지원하는 ‘해외지사화 사업’에 참여하면서 시장동향과 거래선 정보를 제공받고 수출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지난해에 신규시책으로 추진했던 ‘수출거래선 발굴 지원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도내 수출기업 중 우수상품을 생산하고도 거래선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상세한 시장동향조사를 통해 관심 바이어를 찾아주는 조사비용을 업체당 2백만원까지 지원하여, 30개 기업에 대하여 133개의 거래선을 발굴하는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다. 이 사업 역시 KOTRA 현지무역관을 통하여 현지 유망 바이어 발굴 및 품목별 타겟 마케팅을 유도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출기업으로의 첫 발을 내딛게 했다는 점에서 마케팅 기반구축 사업의 좋은 예로 평가받았으며,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참가 반응도 놀라웠다. 지난 5월과 10월, 2회에 걸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한 결과 도내 211업체 참가를 통해 총 443건 바이어 상담으로 7천9백만 달러 수출상담과 2천만 달러 계약 추진의 결과를 거둔바 있다.

3. 대내·외 수출입 여건과 2010년 무역동향

1) 대내·외적인 수출입 여건

2008년 4분기의 경기급락과 비교한다면, 작년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의 회복속도가 매우 빠른 것은 틀림없지만, 대내외적인 불확실성도 적지 않게 잔존한다는 점에서 아직 회복을 낙관하기는 이르다.

2010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2009년부터 이어진 흑자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흑자규모는 2009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 기조를 유지하고 유가나 환율의 급변동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할 때, 올해 국내경제는 지난해 부진의 기저효과에 힘입어 5%에 가까운 높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출활동에 민감한 환율은 국내 달러화 공급우위 기조, 글로벌 달러화 약세 등으로 원화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 불확실성이 부각될 경우 다소 변동이 생길 여지도 있다. 원유가격은 경기회복과 달러화 약세, 투기 수요 등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OPEC 증산, 투기규제 등으로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주요 경제기관들이 전망하고 있다. 충남 역시 이러한 대내외 경제변수의 변화를 감안한다면 2010년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으로 인해 대부분의 품목들이 증가세를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충남은 수출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T분야의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경기회복으로 전반적인 증가세가 예상되며, 반도체와 패널은 높아진 세계시장 점유율과 남아공 월드컵 등 스포츠 특수와 윈도우7 출시 효과에 따른 수요확대로 수출 증가가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은 전년도 수출 감소에서 증가세로 전환하나, 수요부진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세계 통상여건 대조류의 변화

2010년 대부분의 주요국가의 경제가 완만한 회복 기조를 유지하고 플러스 성장률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0년 세계무역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진 경제권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경기침체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2010년 무역규모가 소폭 증가하고, 개도국 경제권 및 신흥개도국의 무역

은 수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은 선진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일부 국가의 통화강세로 증가율은 한 자릿수에 그칠 전망이다.

올해 통상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FTA라고 볼 수 있다. 세계경기의 회복세와 더불어 2010년에는 세계 각국의 FTA 추진으로 자국의 교역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 질 것이다. 한미FTA의 의회 비준에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가 지금까지도 쟁점화 되고 있어 앞으로 논의 될 한미 FTA의 자동차 관련 조항들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한·EU FTA는 2010년 초 정식서명을 마친 뒤 한국과 EU 내에서 각각 비준절차를 거쳐 이르면 2010년 7월경 공식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한-EU FTA 체결로 인한 관세인하는 교역구조를 고려할 경우 전국대비 충남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기전자 수출비중의 경우 우리 도의 수출 비중이 71%에 달해 충남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될 것이다.

이러한 FTA협상으로 국가와 국가간 시장개방 협상시 상대국가에 대한 산업구조와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과 특수화된 체계적인 수출전략을 미리 강구하여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오히려 지역산업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대내·외적인 교역동향에 대한 충남의 통상전망

대내·외적인 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충남 통상지원 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한 수출확대에 초점을 두어 정책수립을 추진한다면, 충남의 2010년 수출 420억 달러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충남 제1의 수출국가인 중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경제성장률이 크게 상승되면 주력상품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수출증가가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2010년부터 고성장을 지속할 경우 2020년까지 수출은 연평균 7%로 증가할 것이고, 2020년경 1조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 내다봤다. 충남은 고성장하(7%)에서 2015년 600억 달러, 2020년 930억 달러 수출달성이 가능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충남은 2000년부터 2008년 연평균 수출 증가율 12%를 유지하였으나, 향후 세계무역시장은 선진국과 신흥개도국과의 경쟁 격화 등으로 증가세는 둔화 될 전망이어서 향후 연평균 12%의 고성장은 어려울 것으

로 전망했다.

충남은 2010년 수출목표를 420억 달러로 설정하고 수출지원 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미국, EU, 인도 등 무역사절단 13회, 해외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20회, 대규모 충남 우수상품 전시상담회 개최와 토털 마케팅 지원분야 확대 등 13개 사업에 주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충남 수출산업구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장단기적인 통상목표 수립과 비전을 제시하고 충남의 수출전략산업과 연계한 시장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수출지원 정책방안이 모색된다면 대한민국의 수출기관차로 거듭나고 있는 충남도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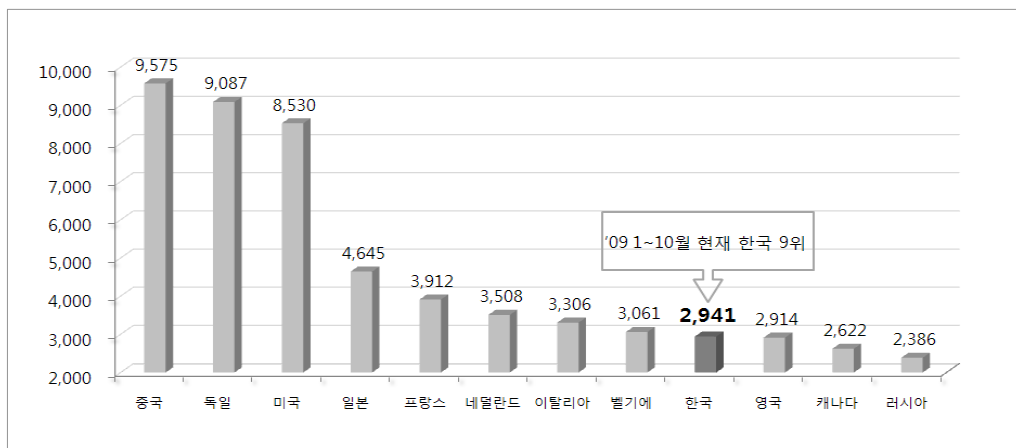
기후변화와 저탄소 경제의 도래

장 현 숙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무역·통상관련 논의동향을 적기에 파악하는 것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업에게 매우 중요하다. 작년 11월 기획재정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2008년 기준으로 92.3%에 이른다. 이는 미국(23.5%), 일본(29.6%), 중국(58.0%)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한 지 불과 42년 만에 2,000억 달러를, 다시 2년 뒤인 2009년에 3,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이 6년, 일본이 12년이 걸렸던 것을 불과 2년만에 해냈다. 정부는 2010년 수출이 4,000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수출순위 9위권 진입을 예상하였다.

2009년 주요국 수출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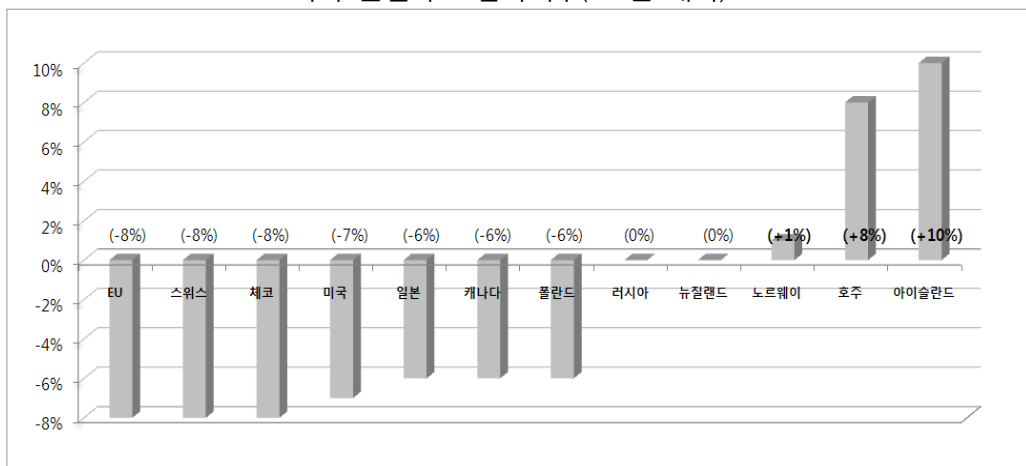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수출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 중에서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된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지난달 말에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도, 유엔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모두 그린이코노미, 저탄소 성장, 녹색 성장 등의 이름을 걸고 환경 부문 투자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을 제안하고 있다. 현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또 미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 회복 과정에서 환경 부문에 대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믿음을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이후 1997년에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1990년 배출량 기준 평균 5.2%를 감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무('90년 대비)



우리나라는 그 당시 개도국으로 인정되어 의무감축국에서 제외되었지만 제15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코펜하겐회의) 개최 이전인 작년 8월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였다. BAU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와 이의 달성의무를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작년 12월 통과되어,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정책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반면, EU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EU 27개

국이 교토의정서 준수를 위해 2005년부터 총량제한 배출권 할당방식(Cap and Trade)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중이며,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은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1990년대 초부터 탄소세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EU 집행위가 발의한 범EU적인 탄소세 도입에 유럽각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등 탄소관세 부과에 대한 논의가 EU 내에서 확대되고 있다.

탄소관세 부과는 작년 미하원을 통과하여 현재 상원에 계류중인 미국의 청정에너지안보법안에서도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2020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탄소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명분으로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 보호라는 취지가 담겨있다.

美 기후변화법안의 주요내용

◆ 탄소관세 부과

- 2020년 시점부터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수입물품에 탄소관세 부과
- * 다만, 의회 승인을 전제로 탄소관세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온실가스 감축

- 배출총량 제한과 배출권거래제(Cap & Trade) 도입
- '20년까지 17%, '50년까지 83% 감축 목표 설정('05년 배출량 기준)
- * kerry-boxer 법안 :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17%→20%)
- 환경청(EPA)의 청정대기법(1991)에 의한 온실가스 규제권한 인정
- 천연가스 및 원자력 발전 확대 유인책 제공 등

◆ 에너지효율 향상

- '20년까지 전기회사는 생산전력의 12%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생산
- 신규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12년까지 30%, '06년까지 50% 이상 강화

◆ 재정 지원

- 신규 석탄발전소에 엄격한 기준부과 대신 CO₂ 포집기술 개발에 연 10억불 지원
- 에너지비용 상승으로부터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저소득 가구에 크레딧 제공

EU 집행위는 근거법률¹⁾에 의거하여 승용차 제조업체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작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즉,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자동차의 경우 유럽 자동차 시장에의 진출 자체가 어렵게 되었다.

1) Regulation (EC) No 443/2009 [OJ L 140, 2009]

EU 주요국의 CO₂ 배출량 기준 자동차세

국가	자동차세 내용
프랑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보조금-부담금(Bonus-Malus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0g/km 이하 신차 구매 시 보조금 제공(60g/km 이하 최고 5,000EUR) 최소 15년 이상 된 차량 폐차 시 300의 'super-bonus' 지급 160g/km 이상의 차량 구매 시 부담금 부과(250g/km 이상 최고 2,600EUR) 매 2년마다 부과 기준 5g/km씩 강화 등록증에 부과되는 지방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₂ 배출량 포함하는 차량의 마력에 부과 세율은 지역에 따라 1마력당 27EUR~ 46EUR CO₂ 배출량에 근거한 법인차세(Company Car Tax)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g/km 이하: 2EUR/g 100g/km 이상 120g/km 이하: 4EUR/g 120g/km 이상 140g/km 이하: 5EUR/g 140g/km 이상 160g/km 이하: 10EUR/g 160g/km 이상 200g/km 이하: 15EUR/g 200g/km 이상 250g/km 이하: 17EUR/g 250g/km 이상: 19EUR/g
영국	<ol style="list-style-type: none"> CO₂ 배출량에 근거한 연간운행세(Annual Circulation Tax)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휘발유/디젤 세율: 100g/km 이하 0~400 기타 연료 세율: 225g/km 이상 385 Company Car Tax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0g/km 이하: 자동차 가격의 10% 235g/km 이상: 자동차 가격의 35% (디젤차는 추가로 3%)
벨기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금인센티브: CO₂ 배출량 115g/km 이하의 차를 구매하는 고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5g/km 이하 차량 구매: 구매가의 15%(최대 4,350EUR) 105g/km~115g/km 차량 구매: 구매가의 3%(최대 810EUR) CO₂ 배출량에 근거한 Company Car Tax 정부 보조금-부담금제도(알룬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5g/km 이하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급(105g/km 이하의 경우 최대 1,000EUR) 195g/km 이상 차량의 경우 부담금 부과(225g/km 이상의 경우 최대 1,000EUR)
독일	2009년 7월 1일부터 연간운행세의 구조를 기본세와 CO ₂ 세로 변경. 기본세율은 휘발유 및 디젤 각각 100cc당 2와 9.50임. CO ₂ 세의 경우 2EUR(g/km)임. CO ₂ 배출량이 110g/km의 경우 CO ₂ 세는 면제
스페인	CO ₂ 배출량에 근거한 등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율은 (120g/km 이하 CO₂ 배출 차량) 0% ~ (200g/km 이상 배출 차량) 14.75%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₂ 배출량이 130g/km 이하 디젤차량 및 140g/km 이하 기타연료 차량의 경우 최대 1,500EUR 인센티브 지급 CNG, LPG, 전기, 수소 등의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더 높은 인센티브 지급

국가	자동차세 내용
네덜란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비에 근거, 동종규모 차량 평균 CO₂ 배출량보다 20% 이상 적은 차량의 경우 최대 1,400EUR까지 특별보조금 지급 - 동종규모 차량 평균 CO₂ 배출량보다 30% 이상 많은 차량은 최대 1,600EUR 부과금 부과 -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6,400EUR까지 보조금 지급 - 232g/km 이상 CO₂를 배출하는 휘발유 차량과 192g/km 이상 배출하는 디젤 차량은 추가로 g당 110EUR 추가세금 부과 2. 연간운행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휘발유 차량과 디젤 차량 각각 110g/km, 95g/km 이하 CO₂를 배출하는 차량의 경우 50%까지 감면

자료: ACEA(2009), KIEP(2009).

이처럼 글로벌 녹색규제가 강화되면 선진국들은 ‘지구 환경 수호’라는 효과뿐 아니라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시장’을 창출하는 효과 또한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미 20여 년 전부터 녹색규제 관련 논의를 진행해 온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풍력, 태양광 발전 및 하이브리드차 등 녹색기술 부문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다. 수출 경쟁력이 상당하다는 뜻이다. 독일, 스웨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태양광 세계 시장 점유율을 92%이상 차지²⁾하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관련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확고한 녹색협약이 체결된다면 시행 5년 안에 1조 달러 상당의 저탄소 기술시장이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³⁾ 수출산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에서 한발 앞서 시장선점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40여년간 철강, 조선, 섬유 등 전통산업에서부터 반도체, 휴대폰, 통신서비스 등 첨단 IT분야에 이르기까지 세계 시장의 주역으로 자리잡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제 이러한 노력을 저탄소 녹색 성장에 집중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은 세계 9위 수준이며 독일의 환경단체가 발표한 ‘기후 변화 성과 순위’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있어 56개국 중 51위로 평가되었다.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의 환경경제효율성(불변가격 부가가치/이산화탄소 배출량)은 EU 평균의 60% 수준이고, 독일의 33%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에너

2) GT&I, 독일 환경청(2007), 누적기준임

3) 기후변화대응보고서, 영국기업연합(CBI) (2009)

지의 97%를 해외에서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 경제는 탄소배출 저감 의무를 감내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범국가적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지금까지 구호에만 그친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시·도별 온실가스 배출량(2006)

구분	합 계 (CO ₂ , 천톤)	부문별 배출량 (CO ₂ , 천톤)						
		산업	수송	가정	상업공공	농업	폐기물	기타
경기	87,342	28,493	20,557	15,972	15,699	1,949	3,484	1,188
전남	73,067	57,282	5,037	2,610	2,182	2,481	695	2,780
경북	64,814	45,144	6,341	5,082	3,549	2,130	1,541	1,027
울산	54,274	42,280	7,217	1,451	2,179	113	540	494
서울	52,450	4,004	13,051	14,622	18,667	9	1,918	179
강원	39,681	28,360	3,522	3,500	2,657	779	483	380
충남	38,288	21,575	5,218	3,883	2,900	2,302	997	1,413
경남	32,210	11,881	7,284	4,579	4,331	1,484	1,458	1,193
인천	30,741	15,775	6,678	3,655	3,434	174	871	154
충북	29,496	18,103	4,068	3,351	1,961	840	797	376
부산	26,095	5,706	9,510	4,201	5,064	61	827	726
전북	20,926	7,695	4,177	3,255	2,435	1,810	412	1,142
대구	16,374	4,712	4,104	3,371	3,542	96	498	51
대전	9,762	1,835	2,403	2,177	2,840	33	423	51
광주	7,854	1,427	2,177	1,882	1,903	85	311	69
제주	4,637	195	1,911	619	966	170	103	673
전국	588,011	294,467	103,255	74,209	74,309	14,516	15,358	11,897

자료: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2009).

충남의 경우 2006년 기준으로 38,288천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전국 배출량의 6.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부문이 56.3%(21,575천톤)로 부문별 배출량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아산, 천안, 서산지역의 산업단지에 위치한 삼성토탈, LG화학 등 중화학공업 중심의 기업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업부문에서 배출하는 양을 전국적으로 비교하였을 때는 높지 않은 수준으로, 오히려 충남 천안이 주거부문에서, 충남 당진이 농업부문에서 배출량 1위를 보여 해당부문의 감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사군구의 유형별 온실가스 배출량(2006)

유형	배출 순위	지역	부문별 배출량 (CO ₂ eq. 천ton/yr)	유형	배출 순위	지역	부문별 배출량 (CO ₂ eq. 천ton/yr)
주거	1	충남 천안시	950	상업	1	서울 강남구	2,309
	2	서울 강남구	885		2	서울 서초구	1,501
	3	서울 송파구	797		3	서울 중구	1,370
	4	서울 관악구	773		4	울산 남구	1,122
	5	경기 남양주시	770		5	서울 영등포구	1,066
산업	1	전남 광양시	35,219	수송	1	울산 울주군	4,278
	2	경북 포항시 남구	31,660		2	부산 남구	2,677
	3	울산 남구	21,264		3	서울 강서구	1,782
	4	울산 울주군	19,091		4	부산 영도구	1,672
	5	전남 여수시	18,657		5	울산 남구	1,652
농업	1	충남 당진군	275	폐기물	1	경남 창원시	493
	2	경기 화성시	272		2	경북 청도군	490
	3	전북 김제시	256		3	경기 안산시 단원구	390
	4	경북 경주시	253		4	경북 포항시 남구	332
	5	전북 정읍시	242		5	울산 남구	330

자료: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2009).

사실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이 세계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불과하다. 최근 몇 년간 배출량이 빠르게 늘었다고는 해도 세계 1, 2위 배출국인 미국(21.4%)이나 중국(18.6%)에 비하면 한참 낮다. 또한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지구의 기후변화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네이처나 사이언스와 같은 유명 과학논문지에 게재되고 있고, 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 보고서 내용이 기후변화 위협성을 경각시키기 위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유포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인간의 활동과 연관이 있든 없든, 과학적 근거가 확실하든 안하든 간에, 자연에서 비롯되어 자연과 더불어, 자연을 이용하고 살아온 인류의 역사가 미래 세대에도 온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과학자, 경제학자, 정치가, 행정가 등 모두가 공감하는 신념임에 틀림없다.

현재 한국은 개도국(교토의정서 기준)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정부 차원에서 스스로 나서서 선진국 수준의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이다. 국가 목표가 확정되었으며, 비전과 전략도 마련되었다.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실천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일만 남았다.

당장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과 함께 지역녹색성장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 조례가 올해 6월까지 제정될 예정이다. 지자체 정책의 경우 타지역의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도입·적용하는 사례가 많아 천편일률적인 제도 시행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의 경우 정책 시행을 위한 인프라 여건과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제도 도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침에 준하여 시행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충남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환경 보전을 통해 쾌적한 삶의 터전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충남 지역만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동향



경제동향 [총괄]

경기

- 12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1.2로 전월대비 0.28%p 상승
- '09년 5월부터 8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으나, 점차 상승폭 둔화

산업활동

- 2009년 충남의 산업생산은 전년대비 18.8% 증가
- LCD, TV등 영상음향 및 통신부문의 산업생산 증가세 지속
- 12월 산업생산지수는 전월대비 3.1% 증가, 제품출하지수는 전월대비 5.7%로 증가세 지속

소비 및 물가

- 대형소매점 및 대형마트 판매액은 전년동월 및 전월대비 큰 폭 증가
- 전월대비 소비자물가 0.3% 상승, 소비자의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 0.4% 상승

수출입

- 지난해의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87.2% 큰 폭 상승하였지만 전월에 비해 0.1% 소폭 상승
- 원유 등의 원자재 수입 확대로 전년동월대비 14.6% 증가, 전월대비 12.2% 증가
- 12월 무역수지 19억 20백만 달러로 전월에 비해 소폭 감소

고용

- 경제활동인구 전년동월대비 1.2% 감소, 취업자 91만 2천명
- 12월 실업인구 전년동월대비 6.8% 감소, 실업률 2.9%

건설 및 부동산

- 건축허가면적은 전월에 비해 큰 폭 증가(133.5%), 건축착공면적은 전월에 비해 큰 폭 감소
- 주택매매가격은 상승폭 둔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증가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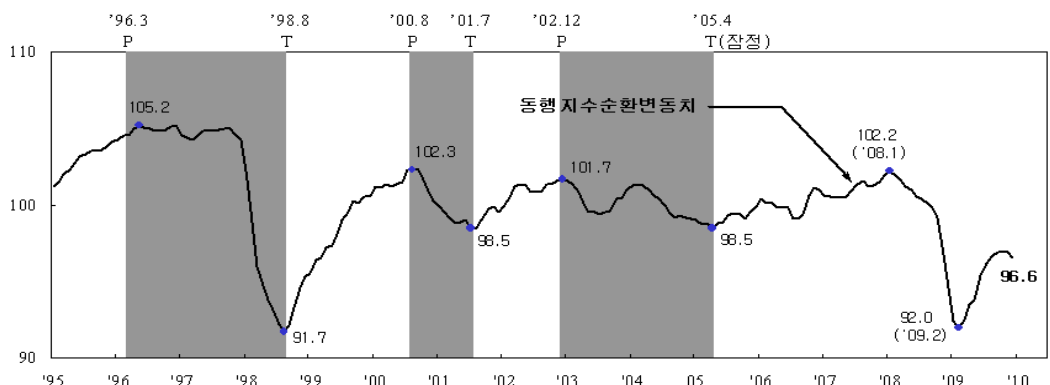
1. 경기

[전국 경기동향]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소폭 하락, 경기회복 둔화

- 동행종합지수는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등 3개 지표가 감소하였으나, 도
소매업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등 4개 지표가 증가하여 전월대비 0.2% 상승
-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p 하락

전국 동행지수 및 순환변동치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p	12월 ^p
○ 동행종합지수	114.5	116.9	118.3	119.4	120.1	120.6	121.1	121.3
· 전월비(%)	0.8	2.1	1.2	0.9	0.6	0.4	0.4	0.2
○ 순환변동치	93.8	95.4	96.2	96.7	96.9	96.9	96.9	96.6
· 전월차(%p)	0.3	1.6	0.8	0.5	0.2	0.0	0.0	-0.3



· 회색부분은 경기수축기임.

- 선행종합지수는 기계수주액, 종합주가지수 등 5개 지표가 감소하였으나, 재고순
환지표, 자본재수입액 등 4개 지표가 증가하여 전월대비 0.6% 상승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전월대비 0.2%p 상승
- * '09.1월부터 12개월 연속 상승

전국 선행종합지수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p	11월 ^p	12월 ^p
○ 선행종합지수	117.4	120.5	122.2	123.4	124.3	125.7	127.4	128.2
· 전월비(%)	2.1	2.6	1.4	1.0	0.7	1.1	1.4	0.6
○ 전년동월비	2.6	5.8	7.8	9.1	10.1	11.3	12.6	12.8
· 전월차(%p)	2.5	3.2	2.0	1.3	1.0	1.2	1.3	0.2

자료 :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충남 경기동향] 수출 감소 등에 기인한 경기 회복세 둔화

- 충남의 12월 경기는 대형판매점 및 전력소비 확대에도 불구하고 상승폭 크게 둔화
- 12월중 동행종합지수는 비농가취업자수, 수출액 및 수입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비 및 전락사용량 증가에 기인하여 전월대비 0.44% 상승
 -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8%p 상승한 101.2을 나타내 전월의 상승세를 이어감
- * '08. 4월 이후 13개월 하락세를 나타내다 '09. 5월부터 8개월 연속 상승

동행종합지수 추이

(2005=100, %, %p)

구 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p	11월 ^p	12월 ^p
○ 동행종합지수	117.0	118.9	120.6	121.3	122.8	123.9	124.7	125.2
· 전월비	0.52	1.65	1.36	0.61	1.27	0.91	0.60	0.44
○ 순환 변동치	95.9	97.3	98.5	98.8	99.8	100.5	100.9	101.2
· 전월차	0.62	1.36	1.17	0.34	0.96	0.74	0.43	0.28

주) p는 잠정치임

- 12월 동행종합지수를 구성하는 6개의 지표는 전월대비 산업생산지수(+1.81%), 대형소매점판매지수(+6.93%), 전력사용량(+3.86%) 증가, 비농가취업자수(-2.04%), 수출액(-0.71%), 수입액(-0.45%)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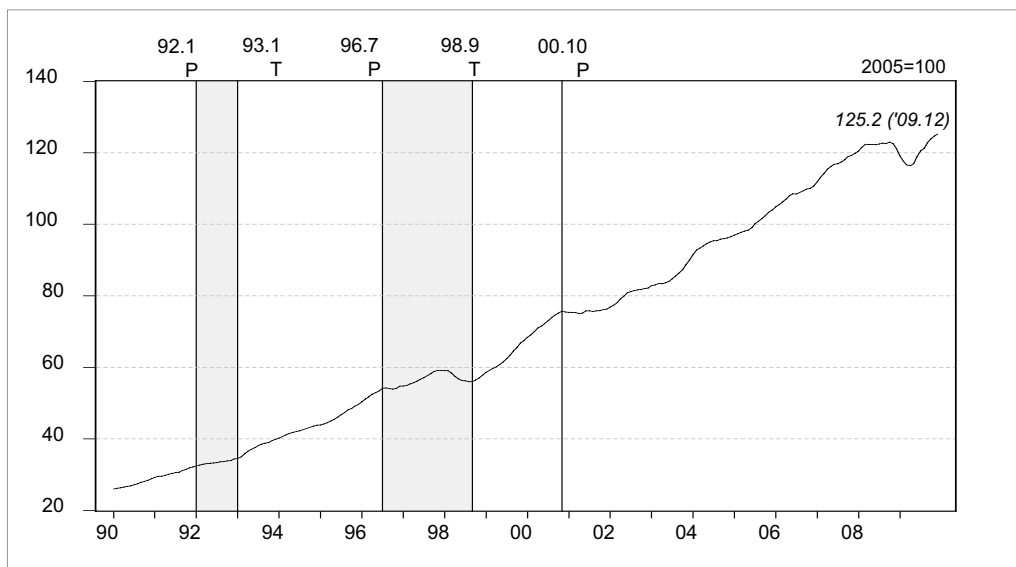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전월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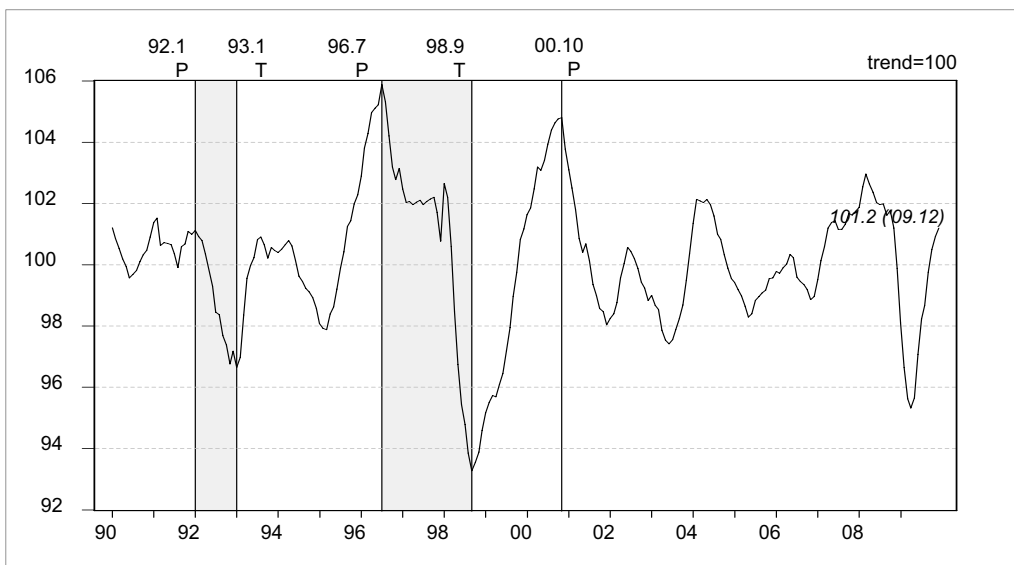
구 성 지 표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p	11월 ^p	12월 ^p
비농가취업자수	0.30	0.82	0.48	0.61	1.14	0.56	-0.26	-2.04
산업생산지수	3.77	6.97	6.66	5.48	4.49	3.27	1.85	1.81
대형소매점판매지수	2.36	1.13	2.42	-0.49	1.33	5.24	2.31	6.93
전력사용량	0.28	1.64	-0.27	0.54	0.79	-1.21	2.53	3.86
수출액(실질)	4.36	6.42	4.22	1.97	4.31	1.06	0.25	-0.71
수입액(실질)	-5.63	-0.77	0.55	-4.69	-0.69	0.76	-0.45	-0.45

주) 증감율은 계절조정 및 불규칙 조정한 계열임

충남 동행종합지수(Coincident Composite Index)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Cyclical Component of Coincident CI)



[기업경기전망(BSI)] 업황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 유지

- 대전·충남 제조업체들은 2010년 2월중 업황이 전월과 비슷하였으며, 향후에도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
- 2월 업황전망 BSI는 제조업(1월 91→2월 91)은 전월과 같았으나 비제조업(1월 84→88)은 전월보다 상승
 - 비제조업체들은 업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제조업의 주요 실적 BSI 추이

구분	2009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0.1월	'10.2월	전월대비 변동폭
기업경기	75	83	87	91	89	91	91(92)	0(+2)
매출	82	90	96	101	98	103	103	0
생산	84	92	98	103	100	104	106	+2
신규수주	81	90	97	96	94	97	96	-1
채산성	83	86	87	91	89	93	94	+1
제품재고	103	102	105	104	105	104	103	-1
인력사정	99	95	98	90	91	97	94	-3
자금사정	90	93	95	94	96	97	95	-2
외부자금수요	115	112	112	113	112	109	113	+4
자금조달사정	89	92	96	97	101	100	96	-4

주) ()내는 전국 기준.

비제조업의 주요 실적 BSI 추이

구분	2009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0.1월	'10.2월	전월대비 변동폭
기업경기	78	81	81	78	79	84	88(87)	+4(+3)
매출	82	88	86	90	93	95	96(100)	+1(+6)
채산성	85	87	87	86	88	93	92(93)	-1(-1)
인력사정	94	93	89	88	85	88	91(92)	+3(-2)
자금사정	93	91	89	93	94	95	90	-5
외부자금수요	114	112	114	109	106	107	111	+4
자금조달사정	91	87	90	97	97	95	95	0

주) ()내는 전국 기준.

$$BSI*(Business Survey Index) = \frac{(\text{긍정적인 응답업체수} - \text{부정적인 응답업체수}) \times 100}{\text{전체응답업체수}} + 100$$

* BSI가 기준치인 100인 경우 긍정적인 응답업체수와 부정적인 응답업체수가 같음을 의미하며, 100이상이면 경우에는 긍정응답업체수가 부정응답 업체수보다 많음을, 100이하인 경우에는 그 반대임을 나타냄.

자료 : 대전·충남지역 기업경기 및 자금사정 조사결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 산업활동

[산업생산] 12월 광공업생산 208.7로 전년동월 대비 70.2% 증가

- 2009년 연간 산업생산은 전년대비 18.8% 증가
- 12월 광공업생산은 전월대비 3.1%, 전년동월대비 70.2%증가
 - 석유정제품,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자동차, 비금속 광물제품 등의 업종에서의 증가에 기인

구분	2008	2009년					
	12월	7월	8월	9월	10월 ^P	11월 ^P	12월 ^P
산업생산지수	122.6	193.1	194.6	212.9	203.6	202.0	208.7
전년동월비	-19.5	24.6	26.2	36.8	21.2	37.8	70.2
전월비	-16.6	5.5	5.9	2.1	-2.2	-2.8	3.1

자료 : 광공업생산동향, 충청지방통계청.

- 전년동월대비 주요업종별 증감(%)

[증가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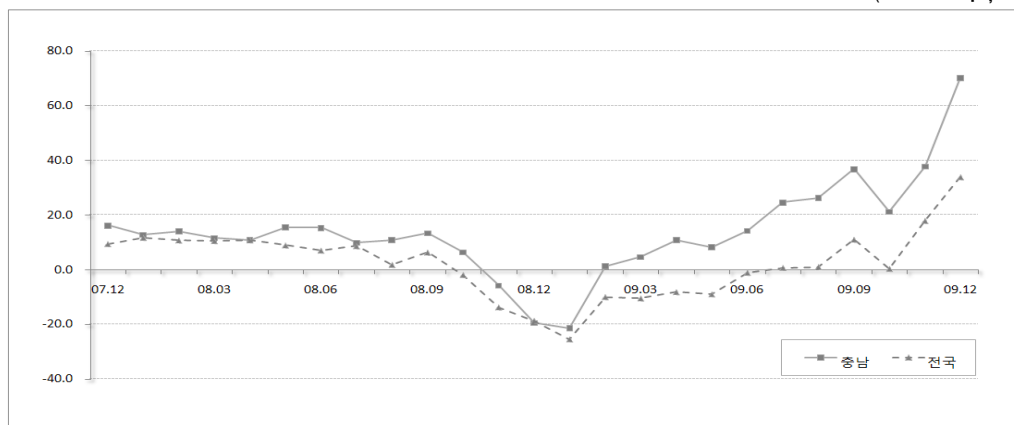
- 영상음향및통신(+134.5) : TV용LCD, 노트북용LCD, 모니터용LCD, 기타모스비메모리 등
- 자동차(+98.5) : 중형승용차, 대형승용차, 동력전달장치, 차체부품 등
- 비금속광물제품(+99.1) : 액정모니터유리, 위생용도기제품, 차량용안전유리 등
- 제1차금속(+94.7) : 아연도강판, 냉연강대, 칼라강판, 석도강판 등

[감소업종]

- 석유정제품(-23.2) : 벙커C유, 경유, 휘발유, 등유 등
- 의료정밀및광학(-28.7) : 광선치료기

전국 및 충남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비

(2005=100.0, %)



[출하 동향] 12월 제품출하지수는 192.1로 전년동월대비 56.4% 증가

- 2009년 연간 출하는 전년대비 13.7% 증가
-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확대(+56.4%) 및 전월대비 5.7% 증가
 - 석유정제품, 음료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자동차, 제1차금속, 기계 및 장비 등의 업종에서 증가

구분	2008	2009년					
	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P	12월 ^P
출하지수	122.8	175.1	173.9	194.2	187.3	186.3	192.1
전년동월비	-17.2	16.3	18.5	30.6	19.3	35.5	56.4
전월비	-8.4	4.2	3.0	5.2	-2.8	-4.9	5.7

자료 : 광공업생산동향, 충청지방통계청.

○ 전년동월대비 주요업종별 증감(%)

[증가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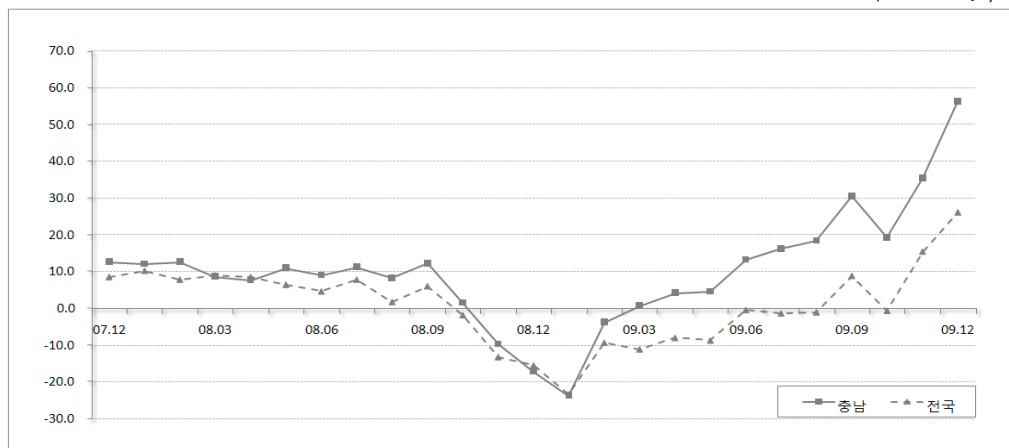
- 영상음향및통신(+130.5) : TV용LCD, 노트북용LCD, 기타모스비메모리, PDP 등
- 자동차(+64.1) : 중형승용차, 동력전달장치, 차체부품, 대형승용차 등
- 제1차금속(+47.6) : 아연도강판, 열연대강, 철근, 칼라강판 등
- 기계및장비(+34.6) : 감속기, 반도체공정장비, 차량용에어컨, 컨베이어 등

[감소업종]

- 석유정제품(-8.3) : 병커C유, 휘발유, 등유, 부탄가스 등
- 음료(-28.3) : 인삼음료, 과즙음료, 혼합음료

전국 및 충남 출하지수 전년동월비

(2005=100.0, %)



[재고 동향] 출하증가에 따라 재고 감소세 유지

-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감소(-9.1%)하였고, 전월대비 증가(+1.2%)
 - 이는 영상음향 및 통신, 석유정제품 등의 업종에서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음료, 섬유제품 등의 업종 감소에 기인

구분	2008	2009년					
	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P	12월 ^P
재고지수	141.6	133.0	144.0	136.9	132.6	128.0	128.7
전년동월비	7.3	3.5	9.9	4.4	-8.1	-15.3	-9.1
전월비	-5.8	1.4	8.0	-2.4	-3.9	-3.4	1.2

자료 : 광공업생산동향, 충청지방통계청.

- 전년동월대비 주요업종별 증감(%)

[증가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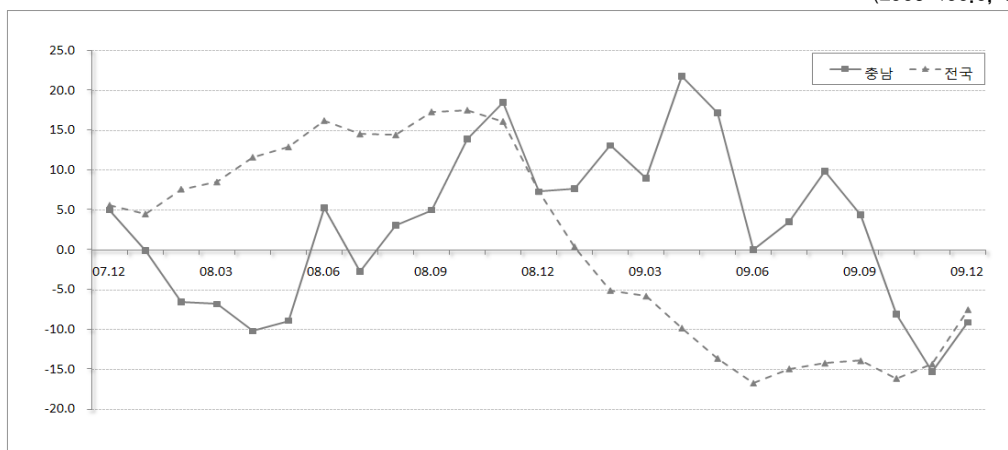
- 영상음향및통신(+12.3) : 노트북용LCD, 모니터용LCD, PDP, 실리콘웨이퍼 등
- 석유정제품(+30.8) : 등유, 휘발유, 경유, 병커C유 등

[감소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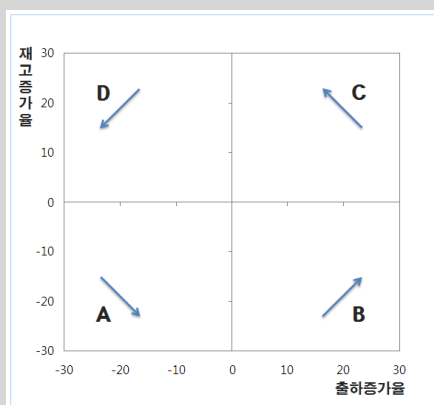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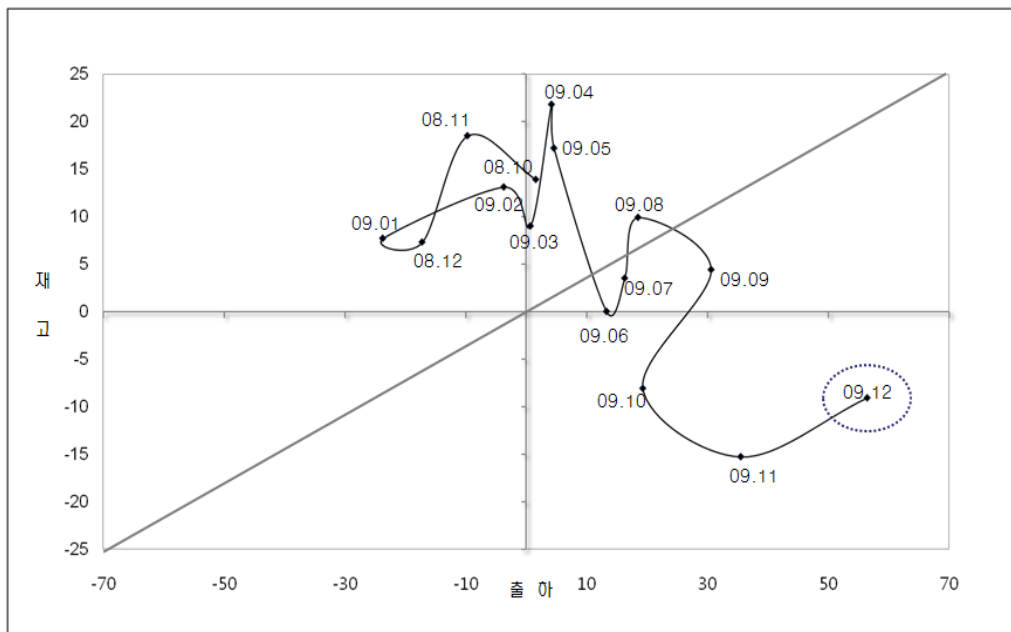
- 자동차(-35.5) : 중형승용차, 대형승용차, 차체부품, 자동차용내연기관 등
- 음료(-66.7) : 인삼음료, 과즙음료, 혼합음료, 탄산음료
- 제1차금속(-13.9) : 열연대강, 강관, 냉연대강, 석도강판 등
- 섬유제품(-40.0) : 자동차용커버, 면사, 재생섬유직물, 원단편조물 등

전국 및 충남 재고지수 전년동월비

(2005=100.0, %)



[출하/재고 분석] 출하증가 지속으로 인한 낮은 재고 수준 유지



- A : 경기회복기(의도하지 않은 재고감소)
- B : 경기확장기(의도된 재고증가)
- C : 경기후퇴기(의도하지 않은 재고증가)
- D : 경기침체기(의도된 재고감소)

- A: 수요증가에 대해 기업들이 기존 재고로 대응함에 따라 재고는 감소하고 출하 증가
- B: 본격적인 수요회복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생산을 확대함에 따라 출하 및 재고가 모두 증가
- C: 수요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생산을 조정하는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재고는 증가하고 출하는 감소
- D: 경기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로 기업들의 생산 감축이 본격화됨에 따라 출하 및 재고가 모두 감소

3. 소비 및 물가

[소비] 대형소매점 및 대형마트 판매액 큰 폭 증가

- 12월 대형소매점 경성판매액은 96,501백만원으로 전월대비 9.9%, 전년동월대비 12.2% 증가, 지수는 149.0 기록
- 내구재 및 준내구재의 증가로 인해 대형마트 경성판매액은 전월비 13.0%, 전년동월비 11.5% 증가

[전월비 주요 상품군별 증감]

- 내구재(+6.1%) : 기타(72.1%), 통신기기(37.3%)
- 준내구재(+20.0%) : 운동, 오락용품(35.8%), 기타(27.9%), 의복(7.6%)
- 비내구재(+11.7%) : 서적, 문구(33.1%), 음식료품(12.1%), 기타(11.8%)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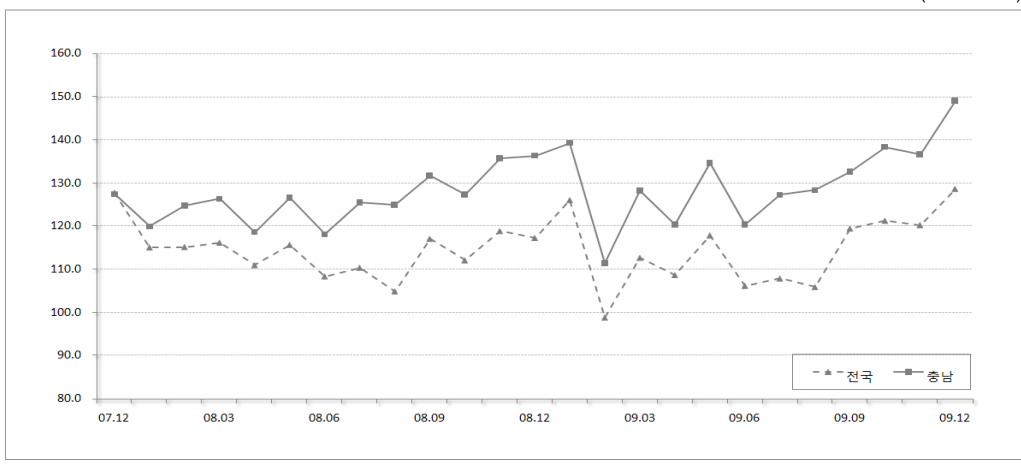
(경성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증감율	
	12월	9월	10월	11월 ^o	12월 ^o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 국	4,404,354	4,605,035	4,647,943	4,608,439	4,960,586		12.6	7.6
총 남	146,481	147,192	149,370	147,437	163,918		11.9	11.2
대형소매점	86,023	85,896	89,093	87,789	96,501		12.2	9.9
대형마트	60,458	61,296	60,227	59,648	67,417		11.5	13.0

자료 :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전국 및 충남 대형소매점 판매 지수

(2005=100)



[물가] 1월 소비자물가지수 전월대비 0.3% 증가

- 2010. 1월 충남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4.7로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3.3%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116.4로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4.1% 상승
- 신선식품지수는 105.8로 전월대비 4.8%, 전년동월대비 3.1% 상승
 - 신선어개, 신선채소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12.4%, 8.8% 상승, 신선과일은 전년동월대비 7.4%하락

소비자 및 생활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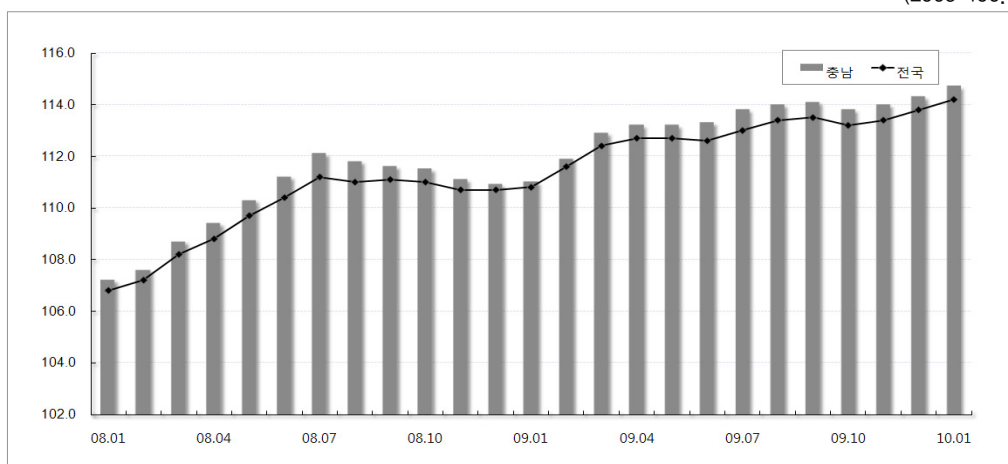
(단위:백만달러, %)

구분	2009년	2009년				2010년	증감율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110.8	113.2	113.4	113.8	114.2	3.1	0.4	
충남 소비자물가지수	111.0	113.8	114.0	114.3	114.7	3.3	0.3	
상품 상 품 상 하 동 향	상 품	109.8	113.7	114.0	114.7	115.2	4.9	0.4
	서비스	111.9	113.9	114.0	114.1	114.3	2.1	0.2
	생활물가지수	111.8	115.4	115.4	115.9	116.4	4.1	0.4
	신선식품지수	102.6	100.4	95.8	101.0	105.8	3.1	4.8

자료 : 소비자물가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전국 및 충남 소비자물가지수

(2005=100.0)



4. 수출입

[수출입] 수출 및 수입 증가세 둔화

- 12월 수출은 지난해 경기 침체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87.2% 증가하였지만 전월대비(+0.1%) 소폭 증가
 - 전년동월대비 87.2%증가(39억 10백만달러)하여 전월에 비해 증가폭 확대(+43.7%→+87.2%)
 -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100.5%), 반도체(+132.5%), 합성수지(+35.3%)등의 수출 증가
- 12월 수입은 원유가 증가로 전환, 나프타, 펄프 등의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증가로 전환
 - 원유(+58.4%), 나프타(+75.3%)등으로 인해 전월대비 증가세 확대(-1.1%→12.2%)
- 수출입 흑자규모는 전월보다 축소(+21억달러 → +19억달러)

전국 및 충남의 수출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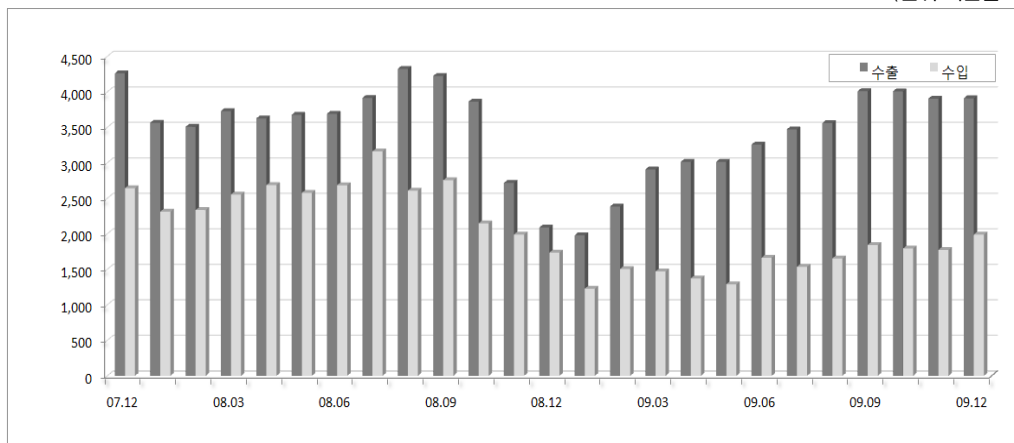
(단위:백만달러, %)

구분	2008년	2009년					증감율	
	12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수 출	27,118	33,922	33,970	33,992	36,010	32.8	5.9
	수 입	26,576	29,757	30,397	29,535	32,920	23.9	11.5
	무역수지	542	4,165	3,573	4,457	3,090	-	-
충남	수 출	2,089	4,010	4,009	3,906	3,910	87.2	0.1
	수 입	1,736	1,843	1,794	1,774	1,990	14.6	12.2
	무역수지	353	2,167	2,215	2,132	1,920	-	-

자료 :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충남의 수출입 추이

(단위:백만달러)



12월 품목별 수출액(금액기준)

(단위: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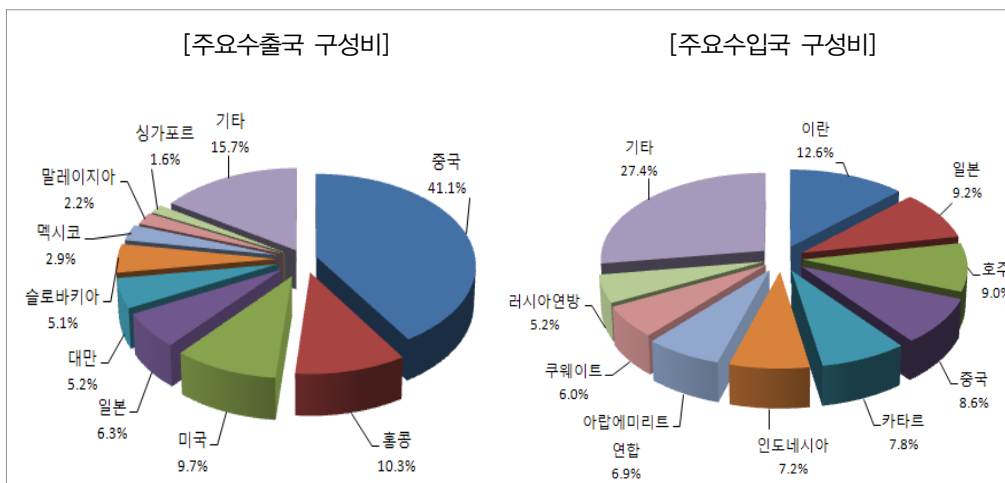
구분	품목명	수출액	증 감 율		수출비중
			전년동월비	전 월 비	
	수출총액	3,910	87.2	0.1	
1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349	100.5	0.5	34.5
2	반도체	1,070	132.5	-11.8	27.4
3	컴퓨터	166	210.0	-14.0	4.2
4	합성수지	152	35.3	13.4	3.9
5	석유제품	142	47.8	-4.1	3.6

12월 품목별 수입액(금액기준)

(단위:백만달러, %)

구분	품목명	수입액	증 감 율		수출비중
			전년동월비	전 월 비	
	수입총액	1,990	14.6	-0.1	
1	원유	849	58.4	10.3	42.7
2	석유제품	261	51.7	63.1	13.1
3	석탄	243	-26.8	-28.7	12.2
4	식물성물질	45	-12.0	12.5	2.3
5	제지원료	34	14.6	6.3	1.7

12월 국별 수출입 현황



5. 고용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 전년동월대비 1.2% 감소, 93만 9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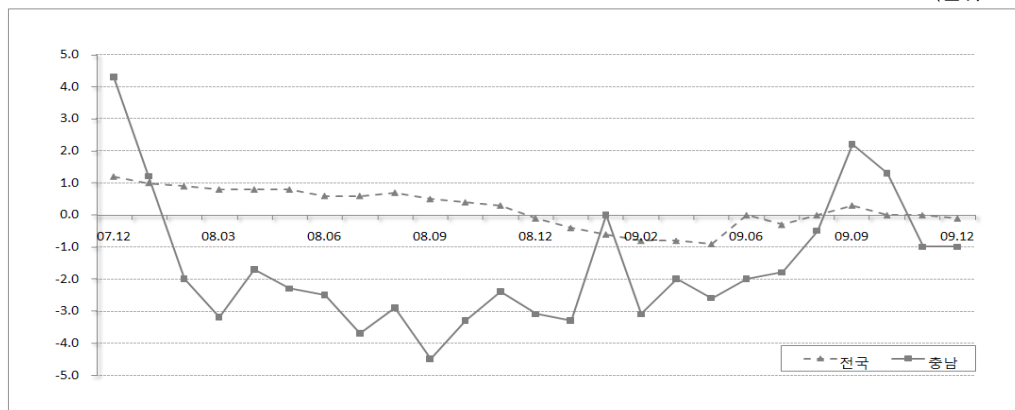
- 12월 15세이상 인구는 전년동월대비 증가(+1.8%)한 반면,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1.2%)감소
 - 15세이상 인구는 1,600천명으로 전년동월(1,572천명)보다 28천명(+1.8%)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939천명으로 전년동월(951천명)보다 12천명(-1.2%) 감소
- 경제활동참가율은 58.7%로 전년동월(+60.5%)에 비해 1.8% 하락
 -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15세이상인구) × 100

[취업자] 취업자 소폭 감소세 지속

- 취업자수는 7월 이후 3개월 연속 소폭으로 증가하다 11월부터 감소세 유지
 - 당월 도내 전체 취업자수는 912천명으로 전년동월(921천명)에 비해 10천명(-1.0%) 감소 및 전월대비 -6.2% 감소
- 광업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증가(+6.5%)한 반면, 농림어업(-12.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은 (-0.6%) 감소

충남 및 전국의 월별 취업자 전년동월비

(단위 : %)



자료 : 충청지역 고용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실업률] 실업인구 전년동월대비 6.8% 감소, 실업률 2.9%

- 12월 도내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6.8% 감소 및 실업률은 전년동월(3.1%)대비 0.2%p 하락
 - 12월중 실업자는 27천명으로 전년동월(29천명)대비 2천명(-6.8%) 감소

6. 금융

[수신부문] 수신 증가세 소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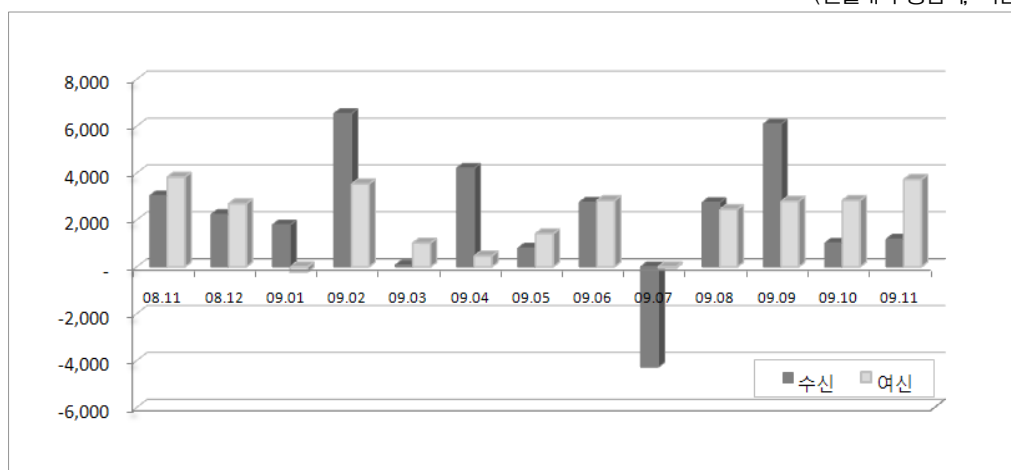
- 11월 중 수신은 거치·적립식예금 및 시장성수신의 감소전환 및 농산물 판매대금 유입, 고금리 정기예금 특판 실시 등으로 증가세 소폭 확대
- 11월 예금은행 수신 감소폭 확대된 반면 비은행기관 증가폭 확대
 - 예금은행 : 10월 -664억원, 11월 -792억원
 - 비은행기관 : 10월 +1,672억원, 11월 +1,973억원

[여신부문]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모두 증가폭 확대

- 11월 중 예금은행 여신은 주택자금 등 가계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폭 확대
- 비은행기관은 천안, 아산 등 개발지역의 대출 호조 및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대출확대 노력으로 증가폭 확대
- 11월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여신 모두 증가규모 확대
 - 예금은행 : 10월 +1,936억원, 11월 +2,468억원
 - 비은행기관 : 10월 +898억원, 11월 +1,255억원

금융기관 여수신 추이

(전월대비 증감액, 억원)



자료 : 대전·충남지역 경제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7. 건설 및 부동산

[건축허가 및 착공] 건축허가면적 전월비 증가세 크게 확대

- 12월 건축허가 면적은 1,156천 m^2 로 전년동월대비 -17.1% 감소, 전월대비 133.5% 증가해 증가세 확대
- 12월 허가면적 구성비 : 주거용(52.4%), 공업용(14.7%), 상업용(9.7%) 등

건축허가면적

(단위 : m^2)

구분	2008년	2009년					증감율	
	12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건축허가	1,394,576	529,197	400,493	495,128	1,156,021	-17.1	133.5	
주거용	649,738	198,011	89,363	85,924	606,294	-6.7	605.6	
상업용	357,165	80,927	73,484	95,836	111,877	-68.7	16.7	
농수산용	29,812	25,867	50,250	43,311	83,762	181.0	93.4	
공업용	130,828	118,862	105,124	146,847	170,431	30.3	16.1	
기 타	227,033	105,530	82,272	120,580	183,656	-19.1	52.3	

자료 : 건축허가 현황, 국토해양부.

- 12월 건축착공면적은 475천 m^2 로 전년동월대비 85.4% 증가, 전월대비 48.8% 감소하여 9월 이후 증가세 유지하다 감소세 전환
- 12월 착공면적 구성비 : 공업용(38.2%), 상업용(19.3%), 주거용(14.9%) 등

건축착공면적

(단위 : m^2)

구분	2008년	2009년					증감율	
	12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건축착공	256,170	381,099	479,221	927,808	474,932	85.4	-48.8	
주거용	35,168	96,605	171,888	149,298	70,890	101.6	-52.5	
상업용	49,513	71,354	90,164	247,365	91,888	85.6	-62.9	
농수산용	31,803	26,356	42,202	57,076	39,858	25.3	-30.2	
공업용	88,800	98,675	55,651	125,434	181,255	104.1	44.5	
기 타	50,886	88,109	119,316	348,635	91,041	78.9	-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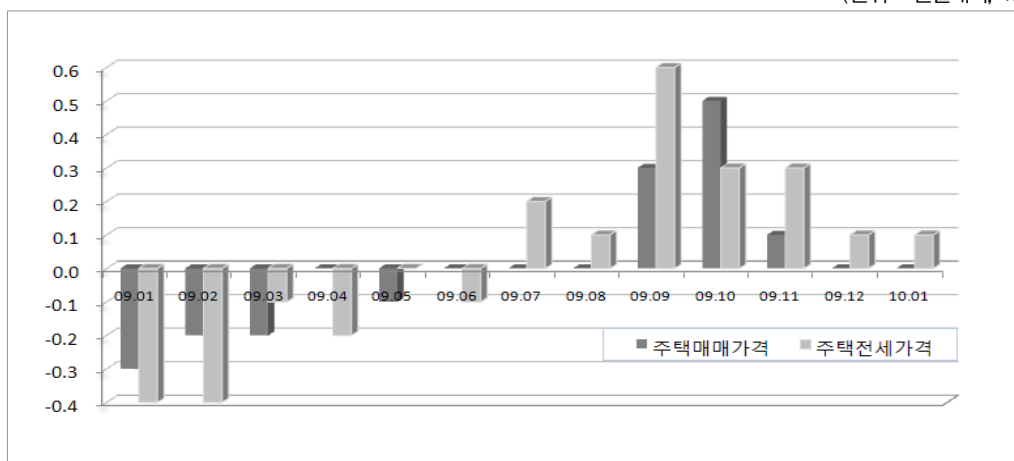
자료 : 건축착공 현황, 국토해양부.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전월대비 포함세 유지

- 2010. 1월 주택매매가격은 계절적 비수기 등으로 11월 이후 오름세 다소 둔화
 - 전년동월대비 증가세(+0.3%)를 나타냈으나, 11월 이후 증가폭이 소폭 상승, 전월수준(+0.0%)과 같은 상승률 보임
- 2010. 1월 주택전세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증가(+0.8%) 및 전월대비 동일한 증가폭 유지
 - 7월부터 전세가격 전월비 증가가 유지되고 있으며, 12월부터 전월비 증가폭(+0.1%)이 동일하게 유지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증감율

(단위 : 전월대비, %)



자료 : 대전·충남지역 경제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일지



충남경제일지

[10.1.5] 충청남도, 중국 헤이룽장성과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道는 5일 헤이룽장성정부에서 충남도 이재관 투자통상실장과 중국 헤이룽장성 자오얼리(趙爾力) 외사관공실 주임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양 도·성간 경제부문을 비롯한 문화·관광·농업·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 수출 시장 확보와 중국 자본의 유치, 2010 세계대백제전의 중국 관광객 유치 기대

[10.1.18] 선진그룹, 충청남도에 4,110억원 투자협약 체결

- 이인화 충남도 도지사 권한대행, 신준희 보령시장, 박성수 선진그룹 회장은 1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보령시 남부산업단지 84만2천㎡에 2013년까지 4,110억원을 투자, 중장비 공장을 건설하는 투자협약(MOU)을 체결
- 선진정공(주) 등 5개의 선진그룹 계열사와 2개의 부품기업 등 총 7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특장차, 굴삭기, 감속기 등 자동차부품과 발전용 산업플랜트를 생산
- ⇒ 충남도에 7,6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273명의 고용창출 효과 전망

[10.1.25] 2010년 충남지역경제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 2010년 1월 25일 오후 2시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시군 및 도의회·금융·경제관련 기관 69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2010년도 경제전망 및 각 기관별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시책 등을 협의

[10.1.25] 청년미취업자를 위한 행정인턴 채용

- 충청남도와 시·군에서 모두 552명을 채용하며, 이 중 상반기에 전체인원의 75%인 414명(도 92, 시군 322)을 배치하여 청년미취업자에게 희망의 일자리 제공
- 행정인턴은 6개월 주 30시간 근무와 월 70만원 정도 지급

[10.1.27~1.30] 「2010 대충청방문의 해」 공동개막식 및 홍보대사 위촉

- 1월 27일 서울 코엑스홀에서 충북관광협회 주관으로 충남·대전·충북 3개 시도가

모여 「2010 대충청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시·군 홍보관, 기업관, 농특산물판매관 등을 운영

- 1월 28일 외국관광객 유치 확대 등을 위해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와 충청남도간 MOU를 체결하고 홍보대사로 송일국(배우, 39세)을 위촉

『10.1.28』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충남사무소 개소

- 1월 28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충남사무소 현판제막식 및 개소식 개최

『10.1.28~2.1』 2010년 충남 경제정책 방향 및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 충남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도내 경제관련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권역별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와 별도 상담코너를 운영
- 1권역(천안, 아산, 연기)은 1월 28일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에서, 2권역(서산, 태안, 당진, 예산, 홍성)은 1월 29일 서산 시민회관에서, 3권역(공주, 보령,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서천, 청양)은 2월 1일 공주 문예회관에서 실시

『10.1.25 ~ 2.19』 2010년 희망근로사업 신청자 적격심사

- 참여 희망자 14,000여명의 가구소득·재산·과세액 등을 심사하여 2월부터 총 274억 원을 들여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슬레이트지붕개량 등 친서민 사업과 공공시설물 개보수, 재해취약시설 정비 등 생산적인 사업을 중점으로 희망근로사업 실시

『10.2.4』 2010년 기술지원사업 합동설명회 개최

- 2월 4일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대학·연구소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하여 기술지원계획 및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10.2.17』 충남경제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상생 다짐대회 개최

- 2월 17일 천안세종웨딩홀에서 대전일보사 주최로 산학연관 관련 단체 50여 명이 참석하여 지역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체결 등 상생 다짐대회 개최

[10.2.18] 제87차 충남경제포럼 조찬세미나 개최

- 2월 18일 오전 7시 충남북부상공회의소(천안)에서 충남경제포럼 회원업체 및 주요 기관장 150여 명이 참석하는 조찬 세미나 개최(특강 : 녹색성장의 의미와 미래)

[10.2.18] 제1차 충남경제연구회 개최

- 2월 18일 충남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道 경제산업국장 및 고용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적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토론 등을 실시

2010년 소상공인 자금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2010. 2. 10 ~ 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규모 : 700억원
- 지원대상 : 충청남도 소재 사업자등록 소상공인
 - 건설업, 제조업, 광업, 운송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충남 소재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지원한도 : 창업, 경영개선자금(2천만원이내), 경영안정자금 미승인 제조업체 (5천만원이내)
- 접 수 처
 - 충청남도 소상공인지원센터(4센터 3분소) : 041-532-0091
 - 신용보증 : 충남신용보증재단(아산본점, 3지점) : 041-541-9831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기업지원과에 문의(042-220-3224, 3307)

2010년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2010. 2. 8 ~ 2. 23
- 지원규모 : 4억원
- 지원대상 : 등록·인정시장으로서 사업추진 주체가 있는 시장
- 사업주체 : 상인회, 진흥조합, 협동조합, 재단법인 등
- 대상사업
 - 공동마케팅,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구조개선사업, 연구용역, 상인교육 등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道홈페이지(www.chungnam.net)와 경제정책과로 문의 (T.042-251-2676 F.042-220-3219)

2010년도 무역사절단 등 참가 희망업체 모집

- 동남아 : 신청기간(2.10~2.19), 지역(말레이시아, 베트남), 운영기간(3.29~4.3)
- 중 동 : 신청기간(2.3~2.19), 지역(인도, UAE, 요르단), 운영기간(4.10~4.18)
- 뮌헨 국제 태양광 박람회 : 신청기간(2.3~2.16), 개최기간(6.9~6.11)
- 프랑크푸르트 자동차부품 전시박람회 : 신청기간(1.29~2.22), 개최기간(9.14~9.19)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지표



1. 국내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4	2005	2006	2007	2008
국내총생산 (GDP) ¹⁾	억달러	7,224	8,447	9,511	10,493	9,287
GDP 성장률 ²⁾	%	12.2	16.9	12.6	10.3	△11.5
국민총소득 (GNI) ¹⁾	억달러	7,245	8,439	9,525	10,512	9,347
GNI 성장률 ²⁾	%	12.5	16.5	12.9	10.4	△11.1
1인당 GNI ¹⁾	달러	15,082	17,531	19,722	21,695	19,231
경제성장률	%	4.6	4.0	5.2	5.1	3.7
산업구조						
농림어업	%	3.7	3.3	3.2	2.9	2.5
광공업		28.0	27.8	27.4	27.5	28.3
전기가스·수도사업		2.4	2.3	2.3	2.2	1.8
건설업		7.8	7.6	7.5	7.4	7.0
기타 서비스업		58.1	59.0	59.7	60.0	60.3
제조업 평균가동률	%	80.1	79.7	80	80.1	77.2
취업자	천명	22,557	22,856	23,151	23,433	23,577
농림어업	%	8.1	7.9	7.7	7.4	7.2
광공업		18.6	18.1	17.6	17.2	16.9
건설업		8.1	7.9	7.9	7.9	7.7
기타 서비스업		65.0	65.7	66.5	67.2	67.9
실업률 (ILO기준)	%	3.7	3.7	3.5	3.2	3.2
경상수지		28,174	14,981	5,385	5,876	△6,406
상품수지 (FOB)	백만 달러	37,569	32,683	27,905	28,168	5,994
서비스수지		△8,046	△13,658	△18,961	△19,768	△16,734
소득수지		1,083	△1,563	534	1,003	5,107
경상이전수지		△2,432	△2,482	△4,093	△3,527	△773
수출액	억달러	1,938	2,538	2,844	3,255	3,715
수입액		1,788	2,245	2,612	3,094	3,568
총저축률	%	34.0	32.1	30.8	30.8	30.7
민간비중	%	28.8	30.5	32.5	34.4	30.6
정부비중		71.5	69.2	67.5	65.6	69.4
총자본형성	십억원	229,278	247,511	256,866	269,188	286,918
국내비중	%	19.2	19.3	18.3	16.7	16.5
국외비중		80.8	80.7	81.7	83.3	83.5
최종소비지출	%	67.8	65.9	67.7	69.0	69.1
민간비중	%	19.2	20.2	20.5	21.0	21.3
정부비중		80.8	79.8	79.5	79.0	78.7
생산자물가상승률	%	6.1	2.1	0.9	1.4	8.6
소비자물가상승률	%	3.4	2.7	2.2	2.6	4.9

주 : 1) 당해년 경사가격 2) 2000년 기준년가격

일 경제지표 (2010.2.1기준)

금리

구 분	'07말	'08말	'09.12말	1.28	1.29	2.1	전일비	'09말비
콜금리(1일),%	5.02	3.02	2.01	2.00	2.01	2.01	0.01	0.00
CD(91일),%	5.82	3.93	2.86	2.88	2.88	2.88	0.00	0.02
국고채(3년),%	5.74	3.41	4.41	4.31	4.27	4.30	0.03	△0.11
국고채(5년),%	5.78	3.77	4.92	4.87	4.82	4.85	0.03	△0.07
회사채(3년, AA-),%	6.77	7.72	5.53	5.43	5.39	5.42	0.03	△0.11

주가

구 분	'07말	'08말	'09.12말	1.28	1.29	2.1	전일비	'09말비
KOSPI지수	1,897.13	1,124.47	1,682.77	1,642.43	1,602.43	1,606.44	0.25%	△4.54%
·거래대금(억원, 일평균)	36,815	32,692	42,856	54,727	57,290	50,842	△6,448	7,986
KOSDAQ지수	704.23	332.05	513.57	517.40	496.56	502.00	1.09%	△2.25%
외국인 순매수(억원, 기간중)	△270,762	△380,648	22,898	7,606	6,788	△993	△7,781	

※ 기간중 : '07말('07.1.1~12.31), '08말('08.1.1~12.31), '09.12말('09.12.1~12.31), 2.1('10.2.1~2.1)

환율

구 분	'07말	'08말	'09.12말	1.28	1.29	2.1	전일비	'09말비
₩/US\$(증가)	936.10	1,259.50	1,164.50	1,151.50	1,161.80	1,169.50	△0.66	△0.43
선물환(NDF, 1개월물)	933.70	1,257.60	1,165.90	1,152.60	1,162.80	1,170.60	△0.67	△0.40
₩/¥100	828.63	1,396.81	1,264.52	1,275.76	1,293.19	1,296.85	△0.28	△2.49
¥/US\$	112.97	90.17	92.09	90.26	89.84	90.18	△0.38	+2.12
US\$/EUR	1.4614	1.4093	1.4325	1.4015	1.3927	1.3876	△0.38	△3.13
CNY/US\$	7.3041	6.8506	6.8279	6.8270	6.8269	6.8272	0.00	+0.01

※ '09년 평균 환율 : (₩/US\$) 1,276.5원, (₩/¥100) 1,363.5원

※ '10년 평균 환율('10.1.1~현재) : (₩/US\$) 1,139.7원, (₩/¥100) 1,250.0원

※ 전일비(%) 및 '08말비(%)에서 절상절하는 대미통화 기준(+는 절상, △는 절하)

국제금리 · 주가 · 가산금리

구 분	'07말	'08말	'09.12말	1.28	1.29	2.1	전일비	'09말비
LIBOR(3월, \$)	4.70	1.43	0.25	0.25	0.25	0.25	0.00	0.00
T/NOTE(10년물)	4.02	2.21	3.83	3.64	3.59	3.65	0.06	△0.25
DOW	13,265	8,776	10,428	10,120	10,067	10,186	1.17%	△3.46%
NIKKEI	15,308	8,860	10,546	10,414	10,198	10,205	0.07%	△3.24%
SANGHAI COMP	5,262	1,821	3,277	2,994	2,989	2,941	△1.60%	△10.25%
외평채가산금리 (bp, 2013년물)	130	405	59	210	210	208	△2	151
CDS (bp, 5Y)	45	316	86	104	106	111	5	20
CRS (% , 1Y)	3.50	1.10	2.25	1.85	1.70	1.65	△0.05	△0.60

유가 · 곡물 · 원자재 · 반도체가격

구 분	'07말	'08말	'09.12말	1.28	1.29	2.1	전일비	'09말비
DUBAI (\$/bbl)	89.30	36.45	78.04	72.30	71.59	71.28	△0.31	△6.45
WTI 2월 선물 (\$/bbl)	95.98	50.57	79.36	73.64	72.89	74.43	1.54	△6.47
원당(센트/파운드)	10.8	11.8	26.95	29.00	29.90	29.28	△2.07%	10.95%
밀 (센트/부셀)	885	611	542	487	474	475	0.16%	△12.47%
대두 (센트/부셀)	1,214	972	1,049	932	914	910	△0.46%	△12.83%
옥수수 (센트/부셀)	456	407	415	362	357	359	0.70%	△13.99%
동 (\$/톤)	6,730	3,050	7,377	7,065	6,868	6,694	△2.53%	△6.90%
알루미늄 (\$/톤)	2,403	1,520	2,242	2,155	2,096	2,078	△0.91%	△6.51%
DDR2 1GB (\$/개)	1.90	0.73	2.57	2.24	2.23	2.22	△0.01	△0.34

※ '09년 평균 유가 : (Dubai) 61.92\$, (WTI) 62.09\$ ※ '10년 평균 유가('10.1.1~현재) : (Dubai) 77.02\$, (WTI) 78.72\$

2. 충남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위	2004	2005	2006	2007	2008
지역내총생산(GRDP) ¹⁾	억원	437,060	474,973	513,613	551,484	582,435
전국대비 구성비 ²⁾	%	5.19	5.46	5.85	5.96	6.24
GRDP 성장률 ²⁾	%	11.7	9.6	12.6	7.6	7.0
1인당 GRDP	만원	2,310	2,476	2,664	2,848	2,996
산업구조	—					
농림어업	%	9.6	8.2	7.6	6.7	6.4
제조업		41.2	43.1	44.4	45.6	46.7
전기가스수도업		4.8	4.1	3.9	4.4	3.1
건설업		9.2	9.6	9.3	8.7	9.2
서비스업 및 기타		35.0	34.7	34.4	34.5	34.3
15세이상인구	천명	1,458	1,485	1,517	1,547	1,564
경제활동인구	천명	942	956	991	1,021	996
취업자	천명	921	931	967	998	973
농림어업	천명	222	219	228	219	190
제조업		154	147	150	170	169
건설업		64	57	56	66	55
서비스업 및 기타		481	508	533	544	558
실업자	천명	21	25	24	23	24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516	529	526	526	568
경제활동참가율	%	64.6	64.4	65.3	66	63.7
실업률	%	2.3	2.6	2.4	2.2	2.4
고용률	%	63.1	62.7	63.8	64.5	62.2
무역수지	백만달러	13,846	15,656	16,599	21,149	13,380
수출액	백만달러	29,272	33,520	38,961	47,823	42,936
수입액		15,426	17,863	22,362	26,674	29,556
소비자물가상승률	%	3.6	3.1	2.6	2.5	5.2

주 : 1) 당해년가격 2) 2005년 기준년가격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경기동행지수 및 순환변동치

(2005=100.0, %)

구 분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지 수 (2005=100)	전 월 비	6개월 전비	12개월 전비	지 수 (Trend=100)	전월차
2006 12	110.7	0.62	5.5	6.1	98.9	0.09
2007 01	111.9	1.07	6.5	6.5	99.5	0.55
02	113.2	1.12	7.7	7.0	100.1	0.61
03	114.2	0.95	8.4	7.4	100.6	0.46
04	115.5	1.08	9.3	7.9	101.2	0.61
05	116.2	0.64	9.3	8.0	101.4	0.18
06	116.8	0.50	9.1	8.0	101.4	0.05
07	117.0	0.14	8.1	7.6	101.1	-0.29
08	117.4	0.42	7.7	7.4	101.1	0.01
09	118.1	0.55	7.6	7.3	101.3	0.16
10	118.9	0.72	7.7	7.4	101.7	0.35
11	119.3	0.31	7.0	7.1	101.6	-0.05
12	119.9	0.47	6.6	6.9	101.7	0.13
2008 01	120.4	0.45	6.2	6.7	101.8	0.12
02	121.5	0.96	6.9	7.1	102.5	0.66
03	122.4	0.71	7.1	7.2	102.9	0.43
04	122.3	-0.05	5.9	6.4	102.6	-0.34
05	122.4	0.01	5.0	5.7	102.3	-0.26
06	122.3	-0.08	4.0	4.9	102.0	-0.33
07	122.5	0.17	3.6	4.5	101.9	-0.06
08	122.7	0.23	3.3	4.1	102.0	0.01
09	122.6	-0.16	2.3	3.3	101.6	-0.37
10	123.0	0.35	2.4	3.2	101.7	0.15
11	122.5	-0.38	1.1	2.3	101.2	-0.57
12	121.1	-1.12	-1.3	0.8	99.9	-1.31
2009 01	119.2	-1.62	-4.4	-1.2	98.1	-1.79
02	117.6	-1.32	-6.6	-2.8	96.6	-1.46
03	116.6	-0.88	-7.6	-4.0	95.6	-1.01
04	116.4	-0.15	-7.2	-4.4	95.3	-0.30
05	117.0	0.52	-5.6	-4.1	95.9	0.62
06	118.9	1.65	-2.1	-2.6	97.3	1.36
07	120.6	1.36	0.8	-1.2	98.5	1.17
08	121.3	0.61	2.2	-0.3	98.8	0.34
09	122.8	1.27	4.8	1.3	99.8	0.96
10	123.9	0.91	5.6	2.7	100.5	0.74
11	124.7	0.60	7.6	3.7	100.9	0.43
12	125.2	0.44	8.2	4.4	101.2	0.28

산업활동지표

(2005=100.0, %)

구 분	생산지수				출하지수				재고지수			
	원지수	계절 조정	전년 동월 (기)비	전월 (기)비	원지수	계절 조정	전년 동월 (기)비	전월 (기)비	원지수	계절 조정	전년 동월 (기)비	전월 (기)비
2007	141.0	-	13.4	-	139.0	-	12.6	-	132.0	-	5.0	-
2008	151.6	-	7.5	-	146.2	-	5.2	-	141.6	-	7.3	-
2009	180.1	-	18.8	-	166.3	-	13.7	-	128.7	-	-9.1	-
2008 4/4	145.7	140.1	-6.2	-10.8	139.1	133.2	-8.3	-12.8	141.6	144.5	7.3	7.8
2009 1/4	139.8	143.7	-5.3	2.6	132.0	134.4	-8.9	0.9	140.7	137.5	9.0	-4.8
2/4	175.7	173.2	11.1	20.5	163.4	160.8	7.3	19.6	129.3	130.8	0.0	-4.9
3/4	200.2	199.4	29.2	15.1	181.1	182.9	21.8	13.7	136.9	139.8	4.4	6.9
4/4	204.8	199.6	40.6	0.1	188.6	182.9	35.6	0.0	128.7	131.3	-9.1	-6.1
2007 12	152.3	150.9	16.2	1.3	148.3	148.1	12.7	4.1	132.0	132.9	5.0	2.0
2008 01	150.9	151.8	12.8	0.6	147.1	147.2	12.1	-0.6	133.6	131.8	-0.1	-0.8
02	135.5	154.0	14.1	1.4	133.8	149.6	12.7	1.6	128.5	127.6	-6.5	-3.2
03	156.3	152.8	11.6	-0.8	153.8	149.5	8.7	-0.1	129.1	125.4	-6.8	-1.7
04	152.6	150.3	10.8	-1.6	151.2	148.2	7.8	-0.9	117.8	118.2	-10.2	-5.7
05	162.3	159.2	15.5	5.9	155.5	152.2	11.0	2.7	116.7	115.8	-8.9	-2.0
06	159.6	160.2	15.3	0.6	150.1	151.3	9.1	-0.6	129.3	129.9	5.3	12.2
07	155.0	152.8	9.9	-4.6	150.6	151.6	11.3	0.2	128.5	128.1	-2.7	-1.4
08	154.2	159.8	10.9	4.6	146.7	153.0	8.3	0.9	131.0	130.2	3.1	1.6
09	155.6	158.7	13.4	-0.7	148.7	153.6	12.3	0.4	131.1	134.0	5.0	2.9
10	168.0	159.6	6.4	0.6	157.0	150.3	1.6	-2.1	144.3	145.1	13.9	8.3
11	146.6	142.1	-5.8	-11.0	137.5	130.2	-9.7	-13.4	151.2	153.4	18.5	5.7
12	122.6	118.5	-19.5	-16.6	122.8	119.2	-17.2	-8.4	141.6	144.5	7.3	-5.8
2009 01	118.6	127.2	-21.4	7.3	112.2	119.3	-23.7	0.1	143.9	144.7	7.7	0.1
02	137.2	146.1	1.3	14.9	128.8	135.8	-3.7	13.8	145.3	141.6	13.1	-2.1
03	163.5	157.9	4.6	8.1	154.9	148.1	0.7	9.1	140.7	137.5	9.0	-2.9
04	169.3	164.8	10.9	4.4	157.6	152.0	4.2	2.6	143.5	145.0	21.8	5.5
05	175.6	174.4	8.2	5.8	162.6	161.4	4.6	6.2	136.8	134.8	17.2	-7.0
06	182.2	180.5	14.2	3.5	170.1	169.1	13.3	4.8	129.3	130.8	0.0	-3.0
07	193.1	190.5	24.6	5.5	175.1	176.2	16.3	4.2	133.0	132.6	3.5	1.4
08	194.6	201.7	26.2	5.9	173.9	181.5	18.5	3.0	144.0	143.7	9.9	8.0
09	212.9	205.9	36.8	2.1	194.2	19.9	30.6	5.2	136.9	139.8	4.4	-2.4
10	203.6	201.4	21.2	-2.2	187.3	185.6	19.3	-2.8	132.6	134.3	-8.1	-3.9
11	202.0	195.7	37.8	-2.8	186.3	176.5	35.5	-4.9	128.0	129.8	-15.3	-3.4
12	208.7	201.8	70.2	3.1	192.1	186.5	56.4	5.7	128.7	131.3	-9.1	1.2

대형소매점 판매액

(단위 : 백만원, 경상판매액, %)

구 분	대형소매점			대형마트		
	판매액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판매액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2007	788,010	11.2	-	544,694	13.8	-
2008	926,919	17.6	-	660,475	21.3	-
2009	1,009,601	8.9	-	725,329	9.8	-
2008 4/4	249,295	17.6	6.0	171,820	22.5	-2.4
2009 1/4	242,604	9.2	-2.7	175,815	11.0	2.3
2/4	242,815	10.3	0.1	174,293	13.0	-0.9
3/4	250,799	6.6	3.3	187,929	6.7	7.8
4/4	273,383	9.7	9.0	187,292	9.0	-0.3
2007 12	76,073	9.6	12.9	50,989	15.0	17.0
2008 01	71,560	24.2	-5.9	50,885	30.9	-0.2
02	74,867	12.5	4.6	54,742	17.8	7.6
03	75,708	22.1	1.1	52,697	29.8	-3.7
04	71,452	12.9	-5.6	49,378	14.4	-6.3
05	76,955	20.9	7.7	53,386	24.8	8.1
06	71,812	25.6	-6.7	51,439	28.9	-3.6
07	76,640	24.1	6.7	57,696	27.6	12.2
08	76,872	19.9	0.3	59,216	18.9	2.6
09	81,758	2.3	6.4	59,216	2.7	0.0
10	78,795	15.0	-3.6	53,995	18.1	-8.8
11	84,477	25.4	7.2	57,367	31.6	6.2
12	86,023	13.1	1.8	60,458	18.6	5.4
2009 01	88,894	24.2	3.3	66,242	30.2	9.6
02	71,135	-5.0	-20.0	50,595	-7.6	-23.6
03	82,575	9.1	16.1	58,978	11.9	16.6
04	77,909	9.0	-5.7	54,588	10.6	-7.4
05	87,492	13.7	12.3	63,137	18.3	15.7
06	77,414	7.8	-11.5	56,568	10.0	-10.4
07	82,019	7.0	5.9	62,467	8.3	10.4
08	82,884	7.8	1.1	64,166	8.4	2.7
09	85,896	5.1	3.6	61,296	3.5	-4.5
10	89,093	13.1	3.7	60,227	11.5	-1.7
11	87,789	3.9	-1.5	59,648	4.0	-1.0
12	96,501	12.2	9.9	67,417	11.5	13.0

소비자물가지수

(2005=100, %)

구 분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지역별 소비자물가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천안	전년 동월 (기)비	보령	전년 동월 (기)비	서산	전년 동월 (기)비
2007	105.1	2.4	106.3	3.1	105.5	3.8	105.1	2.4	104.6	2.4	105.3	2.5
2008	110.3	4.9	112.5	5.8	97.9	-7.2	110.4	5.0	109.8	5.0	110.2	4.7
2009	113.3	2.7	114.8	2.0	103.5	5.7	113.5	2.8	112.4	2.4	113.2	2.7
2008 4/4	111.2	4.6	112.6	4.4	94.8	-11.5	111.3	4.7	110.5	4.2	111.0	4.4
2009 1/4	111.9	3.8	113.0	3.0	104.8	3.0	112.1	3.9	111.2	3.2	111.9	4.0
2/4	113.2	2.6	114.8	1.6	107.5	10.7	113.5	2.7	112.1	2.0	113.1	2.7
3/4	114.0	2.0	115.6	0.9	102.4	4.6	114.2	2.0	112.9	1.5	113.8	1.7
4/4	114.0	2.5	115.6	2.7	99.1	4.5	114.3	2.7	113.3	2.5	113.8	2.5
2008 01	107.2	3.9	109.0	5.3	102.1	0.3	107.3	4.1	107.0	4.1	107.0	3.3
02	107.6	3.8	109.3	4.9	103.8	-3.3	107.7	4.0	107.3	3.9	107.4	3.0
03	108.7	4.1	110.8	5.3	99.3	-6.1	108.7	4.1	108.7	4.7	108.4	3.4
04	109.4	4.3	111.7	5.5	100.0	-5.7	109.5	4.3	109.0	4.7	109.1	3.9
05	110.3	5.1	113.1	6.7	98.7	-4.6	110.5	5.2	109.9	5.5	110.2	4.8
06	111.2	6.0	114.3	7.7	92.7	-7.6	111.4	6.1	110.7	6.2	111.1	5.7
07	112.1	6.5	115.2	8.1	96.7	-7.4	112.2	6.5	111.4	6.5	112.2	6.4
08	111.8	6.1	114.5	7.4	98.9	-5.1	111.9	6.2	111.1	6.0	111.9	5.9
09	111.6	5.5	114.0	6.2	98.2	-11.8	111.8	5.6	111.0	5.4	111.6	5.4
10	111.5	5.1	113.6	5.5	94.9	-16.1	111.7	5.2	110.9	5.0	111.4	5.0
11	111.1	4.7	112.6	4.5	92.3	-11.0	111.2	4.8	110.5	4.3	111.0	4.6
12	110.9	4.0	111.7	3.1	97.1	-7.1	111.1	4.3	110.2	3.5	110.7	3.7
2009 01	111.0	3.5	111.8	2.6	102.6	0.5	111.2	3.6	110.3	3.1	111.0	3.7
02	111.9	4.0	112.8	3.2	104.5	0.7	112.0	4.0	111.3	3.7	112.0	4.3
03	112.9	3.9	114.3	3.2	107.3	8.1	113.2	4.1	112.0	3.0	112.7	4.0
04	113.2	3.5	114.9	2.9	111.5	11.5	113.4	3.6	112.3	3.0	113.2	3.8
05	113.2	2.6	114.8	1.5	109.5	10.9	113.5	2.7	112.0	1.9	113.1	2.6
06	113.3	1.9	114.8	0.4	101.5	9.5	113.6	2.0	111.9	1.1	113.1	1.8
07	113.8	1.5	115.4	0.2	102.2	5.7	114.1	1.7	112.6	1.1	113.6	1.2
08	114.0	2.0	115.7	1.0	103.2	4.3	114.2	2.1	113.0	1.7	113.9	1.8
09	114.1	2.2	115.8	1.6	101.9	3.8	114.3	2.2	113.1	1.9	114.0	2.2
10	113.8	2.1	115.4	1.6	100.4	5.8	114.1	2.1	112.9	1.8	113.6	2.0
11	114.0	2.6	115.4	2.5	95.8	3.8	114.2	2.7	113.3	2.5	113.8	2.5
12	114.3	3.1	115.9	3.8	101.0	4.0	114.6	3.2	113.6	3.1	114.0	3.0
2010 01	114.7	3.3	116.4	4.1	105.8	3.1	114.8	3.2	114.2	3.5	114.6	3.2

수출입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액	전년 동월(기)비	전월 (기)비	수입액	전년 동월(기)비	전월 (기)비	
2007	47,823	22.8	-	26,674	19.3	-	21,149
2008	42,936	-10.2	-	29,556	10.8	-	13,380
2009	39,428	-8.2	-	19,129	-35.3	-	20,299
2008 4/4	8,670	-36.2	-30.4	5,875	-24.8	-31.1	2,795
2009 1/4	7,273	-32.7	-16.1	4,204	-41.6	-28.4	3,069
2/4	9,287	-15.6	27.7	4,325	-45.6	2.9	4,962
3/4	11,043	-11.4	18.9	5,032	-41.0	16.3	6,011
4/4	11,825	36.4	7.1	5,558	-5.4	-5.4	6,267
2007 12	4,262	27.1	-9.2	2,642	32.5	-1.1	1,620
2008 01	3,565	2.5	-16.4	2,312	12.5	-12.5	1,253
02	3,508	6.9	-1.6	2,336	26.9	1.0	1,172
03	3,730	-2.1	6.3	2,555	21.9	9.4	1,175
04	3,627	-0.1	-2.8	2,687	19.5	5.2	940
05	3,678	-1.6	1.4	2,577	10.0	-4.1	1,101
06	3,693	-3.5	0.4	2,686	22.0	4.2	1,007
07	3,916	-6.4	6.0	3,163	43.5	17.8	753
08	4,325	1.8	10.4	2,609	35.3	-17.5	1,716
09	4,224	4.9	-2.3	2,756	41.8	5.6	1,468
10	3,863	-16.8	-8.5	2,148	-14.2	-22.1	1,715
11	2,718	-42.1	-29.6	1,991	-25.5	-7.3	727
12	2,089	-51.0	-23.1	1,736	-34.3	-12.8	353
2009 01	1,980	-44.5	-5.2	1,227	-46.9	-29.3	753
02	2,385	-32.0	20.5	1,506	-35.6	22.7	879
03	2,908	-22.0	21.9	1,471	-42.4	-2.3	1,437
04	3,014	-16.9	3.6	1,373	-48.9	-6.7	1,641
05	3,015	-18.0	0.0	1,291	-49.9	-6.0	1,724
06	3,258	-11.8	8.1	1,668	-37.9	29.2	1,590
07	3,473	-11.3	6.6	1,537	-51.4	-7.9	1,936
08	3,560	-17.7	2.5	1,653	-36.6	7.5	1,907
09	4,010	-5.1	12.6	1,843	-33.1	11.5	2,167
10	4,009	3.8	0.0	1,794	-16.5	-2.7	2,215
11	3,906	43.7	-2.6	1,774	-10.9	-1.1	2,132
12	3,910	87.2	0.1	1,990	14.6	12.2	1,920

고용

(단위 : 천명, %)

구 분	15세이상 인구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2007	1,547	1,021	998	23	526	2.2	64.5
2008	1,564	996	973	24	568	2.4	62.2
2009	1,588	991	961	29	597	3.0	60.5
2008 4/4	1,571	994	967	27	576	2.7	61.6
2009 1/4	1,577	929	900	29	648	3.1	57.1
2/4	1,585	1,021	988	33	563	3.3	62.4
3/4	1,592	1,020	991	28	572	2.8	62.3
4/4	1,598	992	965	27	606	2.8	60.4
2007 12	1,551	968	951	17	582	1.8	61.3
2008 01	1,556	929	910	19	627	2.1	58.5
02	1,557	919	896	24	638	2.6	57.5
03	1,559	979	956	23	580	2.4	61.3
04	1,560	1,019	998	21	542	2.0	64.0
05	1,562	1,035	1,012	23	527	2.2	64.8
06	1,563	1,041	1,021	19	523	1.9	65.3
07	1,565	1,022	997	25	543	2.4	63.7
08	1,566	1,017	995	22	550	2.1	63.5
09	1,568	1,010	984	26	558	2.6	62.8
10	1,569	1,022	999	23	547	2.3	63.6
11	1,571	1,010	982	28	560	2.8	62.5
12	1,572	951	921	29	622	3.1	58.6
2009 01	1,575	906	880	26	669	2.8	55.9
02	1,577	923	895	27	655	3.0	56.8
03	1,580	959	926	33	621	3.5	58.6
04	1,582	1,008	978	29	575	2.9	61.8
05	1,585	1,020	986	34	565	3.3	62.2
06	1,588	1,037	1,001	36	550	3.5	63.1
07	1,590	1,012	980	32	578	3.2	61.6
08	1,592	1,016	989	26	577	2.6	62.1
09	1,594	1,032	1,005	27	562	2.6	63.1
10	1,596	1,040	1,012	28	556	2.7	63.4
11	1,598	999	972	27	599	2.7	60.8
12	1,600	939	912	27	661	2.9	57.0

여수신

(단위 : 억원)

구분	수신			여신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합계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합계
2006	128,492	192,168	320,660	159,494	110,303	269,797
2007	127,588	222,791	350,379	178,085	123,781	301,866
2008	136,456	241,368	377,824	205,933	139,114	345,047
2006 11	122,228	188,306	310,534	158,819	108,083	266,902
12	128,492	192,168	320,660	159,494	110,303	269,797
2007 01	122,748	191,184	313,932	159,968	109,678	269,646
02	124,918	191,529	316,447	161,404	110,479	271,883
03	123,726	192,822	316,548	163,234	111,073	274,307
04	127,105	192,523	319,628	164,099	112,239	276,338
05	126,037	192,541	318,578	164,790	113,388	278,178
06	129,003	194,498	323,501	167,063	114,563	281,626
07	125,792	193,484	319,276	168,909	115,922	284,831
08	127,090	193,140	320,230	170,215	117,581	287,796
09	127,030	194,769	321,799	171,290	118,470	289,760
10	126,709	195,285	321,994	173,230	120,038	293,268
11	126,084	196,175	322,259	178,875	121,188	300,063
12	127,588	222,791	350,379	178,085	123,781	301,866
2008 01	125,478	222,654	348,132	179,675	123,894	303,569
02	128,958	223,342	352,300	182,410	125,155	307,565
03	128,950	225,424	354,374	183,854	126,840	310,694
04	128,760	226,609	355,369	186,430	128,308	314,738
05	133,341	228,669	362,010	188,445	129,441	317,886
06	134,776	231,357	366,133	193,627	130,960	324,587
07	132,663	231,903	364,566	195,926	132,472	328,398
08	136,711	232,611	369,322	197,574	134,176	331,750
09	137,127	233,007	370,134	199,832	135,717	335,549
10	137,918	234,644	372,562	201,785	136,745	338,530
11	137,758	237,832	375,590	205,182	137,174	342,356
12	136,456	241,368	377,824	205,933	139,114	345,047
2009 01	135,826	243,786	379,612	207,195	137,630	344,825
02	140,842	245,306	386,148	210,165	138,195	348,360
03	137,463	248,756	386,219	211,587	137,786	349,373
04	137,382	253,042	390,424	212,577	137,261	349,838
05	137,417	253,803	391,220	213,778	137,471	351,249
06	137,192	256,781	393,973	215,701	138,371	354,072
07	134,342	255,354	389,696	215,146	138,865	354,011
08	138,258	254,180	392,438	215,994	140,467	356,461
09	141,543	256,988	398,531	217,251	142,006	359,257
10	140,879	258,660	399,537	219,187	142,904	362,091
11	140,087	260,633	400,720	221,655	144,159	365,814

지역별 부도율

(단위 : %)

구분	충남	천안	홍성	논산	공주	서산
2007	0.29	0.33	0.71	0.25	0.15	0.03
2008	0.64	0.70	0.89	0.19	1.55	0.23
2009	0.32	0.47	0.28	0.27	0.36	0.01
2008 4/4	1.22	1.43	1.64	0.29	3.33	0.20
2009 1/4	0.44	0.70	0.27	0.13	0.66	0.01
2/4	0.11	0.22	0.06	0.73	0.38	0.00
3/4	0.28	0.48	0.03	0.17	0.29	0.01
4/4	0.35	0.48	0.72	0.06	0.02	0.02
2007 12	0.46	0.23	2.58	0.10	0.36	0.01
2008 01	0.32	0.25	0.30	0.12	1.18	0.38
02	0.29	0.26	0.01	0.10	1.20	0.37
03	0.28	0.22	0.01	0.04	1.18	0.45
04	0.29	0.34	0.35	0.11	0.04	0.21
05	0.32	0.52	0.23	0.05	0.04	0.06
06	0.57	0.76	0.54	0.45	1.81	0.01
07	0.26	0.21	0.57	0.24	1.00	0.06
08	0.85	0.81	2.29	0.16	0.82	0.27
09	1.10	1.44	1.61	0.24	0.88	0.28
10	1.10	0.99	2.14	0.15	3.74	0.40
11	1.40	2.03	1.22	0.44	2.24	0.10
12	1.17	1.28	1.55	0.28	4.00	0.11
2009 01	0.44	0.46	0.54	0.22	1.80	0.03
02	0.56	1.04	0.18	0.14	0.12	0.00
03	0.32	0.60	0.10	0.04	0.07	0.00
04	0.20	0.25	0.05	0.69	0.42	0.00
05	0.13	0.08	0.08	1.01	0.15	0.00
06	0.24	0.33	0.04	0.49	0.57	0.00
07	0.13	0.16	0.00	0.28	0.62	0.00
08	0.31	0.56	0.08	0.15	0.08	0.01
09	0.39	0.73	0.01	0.09	0.16	0.02
10	0.20	0.33	0.05	0.01	0.05	0.06
11	0.45	0.76	0.46	0.12	0.02	0.00
12	0.40	0.35	1.66	0.05	0.00	0.00

토지거래, 건축, 미분양주택

(단위 : 천㎡, ㎡, %)

구분	토지거래		건축허가		건축착공		미분양주택	
	면적	전년동월(기)비	면적	전년동월(기)비	면적	전년동월(기)비	호수	전년동월(기)비
2007	184,304	-21.0	9,944,363	15.0	6,884,740	13.7	119,150	43.6
2008	200,048	8.5	8,533,277	-14.2	5,302,243	-23.0	190,241	59.7
2009	270,249	35.1	7,203,977	-15.6	5,302,140	0.0	189,970	-0.1
2008 4/4	43,338	-8.3	2,951,291	-26.7	1,311,090	-38.7	46,857	31.6
2009 1/4	76,140	36.5	1,626,922	-7.4	938,720	-35.6	51,526	15.5
2/4	77,357	35.2	1,777,754	-5.3	1,309,835	-1.9	51,231	2.7
3/4	59,507	36.1	1,747,659	-10.3	1,171,624	-2.2	45,132	-7.7
4/4	57,245	32.1	2,051,642	-30.5	1,881,961	43.5	42,081	-10.2
2007 12	17,650	4.8	769,390	-62.6	540,695	-48.2	12,770	11.0
2008 01	15,781	-10.6	489,665	-36.4	625,313	15.6	14,075	10.2
02	14,870	-5.8	538,432	10.0	312,419	-50.0	14,888	5.8
03	25,124	69.0	728,610	35.3	520,869	66.7	15,633	5.0
04	18,835	-25.0	832,681	14.3	609,271	17.0	16,227	3.8
05	19,625	4.2	460,003	-44.8	351,908	-42.2	16,910	4.2
06	18,739	-4.5	585,106	27.2	373,960	6.3	16,750	-0.9
07	18,862	0.7	723,613	23.7	515,290	37.8	16,646	-0.6
08	13,922	-26.2	654,360	-9.6	373,723	-27.5	16,069	-3.5
09	10,952	-21.3	569,516	-13.0	308,400	-17.5	16,186	0.7
10	16,759	53.0	742,487	30.4	742,463	140.7	15,662	-3.2
11	12,398	-26.0	814,228	9.7	312,457	-57.9	15,277	-2.5
12	14,181	14.4	1,394,576	71.3	256,170	-18.0	15,918	4.2
2009 01	13,008	-8.3	654,850	-53.0	251,229	-1.9	16,349	2.7
02	29,816	129.2	391,595	-40.2	274,115	9.1	16,926	3.5
03	33,316	11.7	580,477	48.2	413,376	50.8	18,251	7.8
04	28,297	-15.1	390,564	-32.7	350,997	-15.1	17,939	-1.7
05	23,397	-17.3	487,434	24.8	522,731	48.9	17,229	-4.0
06	25,663	9.7	899,756	84.6	436,107	-16.6	16,063	-6.8
07	22,873	-10.9	373,057	-58.5	331,433	-24.0	16,342	1.7
08	18,848	-17.6	845,405	126.6	459,092	38.5	14,595	-10.7
09	17,786	-5.6	529,197	-37.4	381,099	-17.0	14,195	-2.7
10	15,543	-12.6	400,493	-24.3	479,221	25.7	13,656	-3.8
11	18,240	17.4	495,128	23.6	927,808	93.6	14,148	3.6
12	23,462	28.6	1,156,021	133.5	474,932	-48.8	14,277	0.9

주택매매 및 전세매매지수

(2008.12=100)

구분	주택매매가격						주택전세가격					
	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비	아파트	단독	연립	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비	아파트	단독	연립
2007 01	98,2	0,0	0,1	98,9	98,7	95,4	94,5	1,0	0,0	95,4	94,0	93,8
02	98,4	0,0	0,2	98,8	99,4	95,5	94,8	1,0	0,3	95,8	94,3	94,1
03	98,3	-0,5	-0,1	98,6	99,4	95,5	95,3	1,2	0,5	96,1	95,0	94,4
04	98,5	-0,5	0,1	98,5	99,9	95,2	95,5	1,2	0,2	96,2	95,3	94,7
05	98,5	-0,6	0,1	98,4	100,2	95,2	95,5	1,0	0,0	96,3	95,3	94,7
06	98,6	-0,1	0,0	98,3	100,3	95,2	95,5	1,3	0,0	96,3	95,2	94,7
07	98,5	-0,1	-0,1	98,3	100,2	95,2	95,8	1,8	0,3	96,4	95,5	96,3
08	98,7	0,5	0,2	98,1	100,7	95,2	95,9	2,0	0,2	96,5	95,7	96,4
09	99,0	1,0	0,4	98,1	101,5	96,0	96,3	2,1	0,4	96,7	96,4	96,4
10	99,1	1,1	0,0	98,1	101,5	96,1	96,7	2,4	0,4	96,8	97,0	97,5
11	98,9	0,9	-0,1	98,0	101,3	96,1	96,8	2,5	0,1	96,7	97,4	97,5
12	98,9	0,8	0,0	98,0	101,2	96,1	96,8	2,5	0,0	96,5	97,7	97,5
2008 01	98,7	0,6	-0,2	97,8	101,1	96,1	96,7	2,4	-0,1	96,2	97,8	97,5
02	98,6	0,2	-0,1	97,7	100,9	96,1	96,6	1,9	-0,1	96,0	97,9	97,1
03	98,5	0,2	-0,1	97,5	100,9	96,6	96,7	1,4	0,1	96,2	97,8	97,3
04	98,5	0,0	-0,1	97,4	100,9	96,6	97,0	1,6	0,3	96,4	98,3	97,3
05	98,5	0,0	0,0	97,5	100,9	96,6	97,1	1,7	0,2	96,7	98,3	97,3
06	98,8	0,3	0,3	98,0	100,6	97,5	97,7	2,4	0,6	97,1	99,1	97,4
07	99,1	0,6	0,3	98,5	100,5	97,9	98,0	2,4	0,3	97,3	99,4	98,0
08	99,3	0,7	0,2	98,8	100,3	99,3	98,6	2,8	0,6	97,8	100,0	99,5
09	100,1	1,1	0,8	100,0	100,5	99,7	99,5	3,4	0,9	99,3	100,0	100,0
10	100,3	1,2	0,2	100,2	100,5	99,7	100,0	3,4	0,5	100,0	100,0	100,0
11	100,2	1,3	0,0	100,2	100,3	99,7	100,2	3,5	0,2	100,3	100,0	100,0
12	100,0	1,1	-0,2	100,0	100,0	100,0	100,0	3,3	-0,2	100,0	100,0	100,0
2009 01	99,7	0,9	-0,3	99,6	99,7	100,2	99,6	3,0	-0,4	99,3	100,0	100,2
02	99,5	0,9	-0,2	99,2	99,7	100,2	99,2	2,8	-0,4	98,9	99,7	100,2
03	99,3	0,7	-0,2	99,0	99,5	100,2	99,1	2,5	-0,1	98,5	100,0	100,2
04	99,2	0,8	0,0	98,9	99,6	100,5	98,9	2,0	-0,2	98,6	99,3	100,2
05	99,1	0,6	-0,1	98,8	99,2	100,5	98,9	1,8	0,0	98,6	99,3	100,2
06	99,1	0,2	0,0	98,7	99,3	100,5	98,8	1,1	-0,1	98,5	99,1	100,2
07	99,0	-0,1	0,0	98,6	99,3	100,5	99,0	1,0	0,2	98,6	99,5	100,3
08	99,0	-0,3	0,0	98,8	98,9	100,5	99,1	0,5	0,1	98,7	99,5	100,3
09	99,3	-0,8	0,3	99,1	99,1	101,3	99,7	0,1	0,6	99,0	100,2	100,9
10	99,8	-0,5	0,5	99,4	99,8	101,5	100,0	0,0	0,3	99,4	100,0	103,5
11	99,9	-0,3	0,1	99,7	99,8	101,5	100,2	0,0	0,3	99,7	100,3	103,5
12	100,0	0,0	0,0	99,8	99,8	101,5	100,3	0,3	0,1	99,9	100,3	103,4
2010 01	100,0	0,3	0,0	99,8	99,8	101,5	100,4	0,8	0,1	100,0	100,5	103,4



Chungnam Economic Trends

부록

충남경기종합지수 구성지표 및 해설



이용자를 위하여

1. 자료를 이용하기 전에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충남경기종합지수(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시계열자료는 불변 가격 기준으로 환산(실질화), 계절 및 불규칙 변동의 조정 등으로 작성기관에서 공표하는 원계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충남경기종합지수(동행종합지수)의 최근 2~3개월 수치는 각각 잠정치입니다.
4. 본 책자에 사용되는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P : 정점 (Peak)
 - T : 저점 (Trough)
 - - : 해당사항 없음 (Not Available)
5. 현재 충남지역 경기종합지수는 동행종합지수만 작성되고 있으며, 선행종합지수와 후행종합지수는 향후 작성할 예정입니다.
6.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이나 경기종합지수에 관한 제안 또는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및 충남발전연구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담당기관	담당자	연락처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박 용 진	042-220-2667
충남발전연구원	백 운 성	041-840-1168

1.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월별 추이

구 분	비농가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2005=100)		대형소매점판매지수(2005=100)	
	천명	전월비(%)	지수	전월비(%)	지수	전월비(%)
2006 12	697.6	0.43	127.4	0.62	100.3	2.37
2007 01	704.8	1.02	130.6	2.47	99.7	-0.64
02	712.3	1.07	132.3	1.29	103.8	4.11
03	723.9	1.63	133.3	0.74	103.1	-0.64
04	730.2	0.88	134.0	0.55	107.0	3.78
05	733.0	0.38	134.4	0.30	105.4	-1.48
06	732.5	-0.07	135.9	1.13	105.9	0.47
07	733.3	0.11	137.2	0.98	103.3	-2.45
08	736.5	0.44	138.4	0.87	105.2	1.85
09	739.0	0.34	139.8	1.01	110.5	4.99
10	741.4	0.33	142.2	1.72	114.4	3.52
11	740.2	-0.16	144.1	1.31	115.2	0.67
12	743.0	0.37	146.4	1.58	112.3	-2.52
2008 01	748.3	0.71	147.9	1.05	114.0	1.58
02	754.3	0.81	149.9	1.33	116.6	2.28
03	757.4	0.41	151.4	1.02	120.6	3.36
04	758.1	0.09	151.5	0.03	121.6	0.86
05	757.9	-0.03	153.2	1.12	121.5	-0.04
06	761.4	0.47	154.7	1.01	122.5	0.80
07	763.0	0.21	154.9	0.11	123.2	0.55
08	767.4	0.58	155.9	0.62	124.5	1.08
09	765.2	-0.28	156.8	0.63	122.9	-1.32
10	769.3	0.54	158.4	0.99	123.9	0.83
11	768.4	-0.13	155.5	-1.80	126.8	2.37
12	768.1	-0.03	148.6	-4.47	127.2	0.29
2009 01	757.1	-1.43	144.3	-2.87	125.9	-1.05
02	749.3	-1.04	142.0	-1.58	121.4	-3.54
03	737.0	-1.64	141.9	-0.09	122.6	1.00
04	738.1	0.15	142.8	0.61	122.1	-0.44
05	740.3	0.30	148.2	3.77	125.0	2.36
06	746.4	0.82	158.5	6.97	126.4	1.13
07	750.0	0.48	169.0	6.66	129.4	2.42
08	754.5	0.61	178.3	5.48	128.8	-0.49
09	763.1	1.14	186.3	4.49	130.5	1.33
10	767.4	0.56	192.4	3.27	137.4	5.24
11	765.4	-0.26	196.0	1.85	140.6	2.31
12	749.8	-2.04	199.5	1.81	150.3	6.93

주 1) 각 구성지표 및 전월비는 계절요인 및 불규칙 요인을 제거한 수치로 통계작성기관에서 공표하는 원계열 및 계절조정계열과는 차이가 있음.

2) 최근 2~3개월분은 잠정치임.

구 분	전력소비량		수출액(실질)		수입액	
	Mkw	전월비(%)	천불	전월비(%)	천불	전월비(%)
2006 12	2,130,314.6	1.25	3,692,838.3	1.42	1,869,215.8	0.12
2007 01	2,156,574.5	1.23	3,784,827.9	2.49	1,919,040.0	2.67
02	2,185,443.2	1.34	3,878,309.4	2.47	1,927,816.0	0.46
03	2,204,366.2	0.87	4,003,472.3	3.23	1,955,587.8	1.44
04	2,233,930.7	1.34	4,080,804.5	1.93	2,005,734.3	2.56
05	2,257,170.0	1.04	4,172,890.8	2.26	2,094,642.6	4.43
06	2,276,608.6	0.86	4,250,849.1	1.87	2,132,942.8	1.83
07	2,299,282.5	1.00	4,323,600.7	1.71	2,119,950.1	-0.61
08	2,318,035.6	0.82	4,369,578.4	1.06	2,089,222.4	-1.45
09	2,340,938.0	0.99	4,361,379.6	-0.19	2,051,551.7	-1.80
10	2,367,711.2	1.14	4,374,471.8	0.30	2,052,093.8	0.03
11	2,395,645.3	1.18	4,436,602.6	1.42	2,034,397.6	-0.86
12	2,421,822.7	1.09	4,543,186.6	2.40	2,053,934.2	0.96
2008 01	2,443,584.4	0.90	4,458,614.0	-1.86	2,044,428.7	-0.46
02	2,472,081.4	1.17	4,451,414.2	-0.16	2,106,398.6	3.03
03	2,503,466.9	1.27	4,385,202.9	-1.49	2,142,201.4	1.70
04	2,509,034.4	0.22	4,298,852.1	-1.97	2,122,145.5	-0.94
05	2,525,688.2	0.66	4,189,452.7	-2.54	2,103,411.2	-0.88
06	2,536,624.0	0.43	3,981,505.7	-4.96	2,048,453.2	-2.61
07	2,559,367.1	0.90	3,905,412.0	-1.91	2,058,376.8	0.48
08	2,564,369.9	0.20	3,891,711.9	-0.35	2,029,657.3	-1.40
09	2,567,299.6	0.11	3,878,251.1	-0.35	2,018,111.7	-0.57
10	2,597,817.7	1.19	3,864,165.1	-0.36	1,984,126.7	-1.68
11	2,588,733.2	-0.35	3,744,174.6	-3.11	1,965,955.5	-0.92
12	2,561,438.0	-1.05	3,569,832.6	-4.66	1,919,659.4	-2.35
2009 01	2,550,590.5	-0.42	3,476,091.9	-2.63	1,792,527.4	-6.62
02	2,532,539.6	-0.71	3,325,874.8	-4.32	1,741,943.2	-2.82
03	2,519,959.5	-0.50	3,322,758.7	-0.09	1,666,527.9	-4.33
04	2,518,816.7	-0.05	3,398,182.2	2.27	1,594,055.9	-4.35
05	2,525,984.9	0.28	3,546,368.0	4.36	1,504,235.6	-5.63
06	2,567,323.8	1.64	3,774,089.8	6.42	1,492,671.3	-0.77
07	2,560,371.0	-0.27	3,933,439.4	4.22	1,500,864.1	0.55
08	2,574,111.2	0.54	4,011,118.6	1.97	1,430,537.6	-4.69
09	2,594,538.2	0.79	4,183,999.3	4.31	1,420,599.0	-0.69
10	2,563,165.7	-1.21	4,228,488.6	1.06	1,431,349.2	0.76
11	2,627,995.1	2.53	4,239,028.3	0.25	1,424,886.8	-0.45
12	2,729,499.6	3.86	4,208,908.4	-0.71	1,418,469.4	-0.45

주 1) 각 구성지표 및 전월비는 계절요일 및 불규칙 요인을 제거한 수치로 통계작성기관에서 공표하는 원계열 및 계절조정계열과는 차이가 있음.

2) 최근 2~3개월분은 잠정치임.

2. 경기종합지수 주요용어 해설

충남경기종합지수 작성개요

1)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 통계의 종류 : 일반, 가공통계
- 승 인 번 호 : 제 21308 호

2) 작성연혁

- 2000. 7. : 통계작성 승인
- 2009. 4. : 통계작성 수정승인

3) 작성목적

- 생산, 투자, 소비, 고용, 무역 등 경제 각 부분의 지표 중에 경기를 잘 반영하는 주요지표를 선정, 이들의 움직임을 종합한 경기종합지수에 의하여 전체 경기의 변화방향, 국면, 전환점을 판단, 예측하기 위하여 작성
- 지역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역경기의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수립·평가 등의 기초자료 제공

4) 구성지표(6개)

- 비농가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 대형소매점판매지수, 전력소비량, 수출액, 수입액

5) 작성부문

-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전월비 증감율, 순환변동치

6) 작성주기 및 결과공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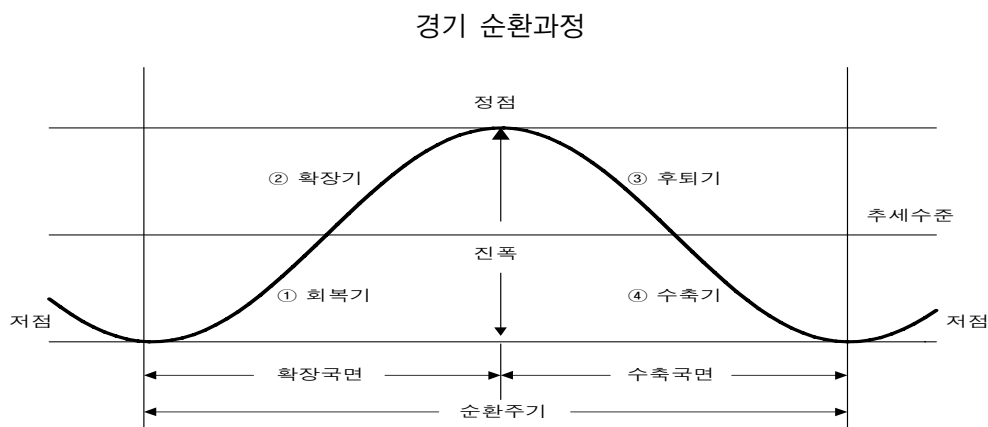
- 주 기 : 매월
- 공표방법 및 시기 : 보도자료·인터넷 게재 : 작성대상월 익월 15일경
- 공표범위
 - 지역 : 충청남도
 - 내용 : 동행종합지수 및 구성지표

7) 기타 이용상의 유의점·제약요인

- 경기변동은 선행·동행·후행지수를 동시에 작성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나, 동행지수만 작성하고 있어 전체적인 경기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
- 계절변동요인, 불규칙변동요인 제거 및 순환변동치 산출 등의 방법이 상이한 결과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경기순환 국면

- 경기순환이란 총체적 경제활동이 경제의 장기 성장추세를 중심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성장하는 현상을 의미
- 경기순환의 국면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경기저점에서 정점까지를 경제활동이 활발한 확장국면, 경기정점에서 저점까지를 경제활동이 위축된 수축국면으로 나누는 이분법이 주로 이용
- 확장과 수축의 경기국면에서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 또는 정점에서 다음 정점까지의 기간을 순환주기라고 하며, 순환의 강도를 의미하는 정점과 저점간의 차이를 순환진폭이라 함



기준순환일

- 기준순환일이란 국민경제 전체의 순환변동에서 국면전환이 발생하는 경기전환점을 의미

- 확장국면에서 수축국면으로 전환하는 경기정점과 수축국면에서 확장국면으로 전환하는 경기저점이 있고, 개별 경기지표에서의 전환점은 특수순환일이라고 함
- 일반적으로 총체적 경제활동 성장률이 2분기 이상 추세성장률을 상회하면 확장국면, 하회하면 수축국면으로 판단함
- 우리나라의 기준순환일은 통계청에서 GDP, 산업생산 등 개별지표와 경기지수의 움직임을 분석한 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사후적으로 발표하고 있고, 충청남도의 기준순환일은 통계청과의 협의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GDP, 산업생산 등 개별지표와 경기지수의 움직임을 분석한 후 사후적으로 발표
- 충청남도는 지역단위로 경기동행지수를 개발한 이후인 1990년 1월 1일 이후 2007년 12월까지의 경기지수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기준순환일과 국면지속기간을 설정

충청남도 기준순환일과 국면 지속기간

구 분	기준순환일			지속기간(개월)		
	저 점	정 점	저 점	확장기	수축기	순환기
제1순환기	90.1	92.1	93.1	24	12	36
제2순환기	93.1	96.7	98.9	42	24	66
제3순환기	98.9	00.10 ¹⁾		26		

주) 1)은 잠정치임.

경기순환과 경기지표의 변동요인

- 일반적인 경기지표는 아래의 네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음
 - 계절요인 : 일년동안 계절에 따른 주기적 변동
 - 불규칙요인 : 천재지변, 파업 등에 따른 단기적·우발적 변동
 - 추세요인 : 인구증가, 자본축적, 기술진보 등에 의한 장기적 변동
 - 순환요인 : 경기의 상승과 하강에 따른 변동하는 요인
- 경기분석에는 이들 요인 중 비경기적 요인인 계절 및 불규칙요인을 제거하고 추세·순환치 또는 순환변동치가 이용됨

순환변동치와 증감율

- 경기지표는 계절조정계열(추세·순환치)의 전월(기)비와 순환변동치, 원계열의 전년동월(기)비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음
- 경기 국면과 전환점을 나타내는 순환변동치가 상승하면 경기의 확장국면, 하강하면 수축국면이 되며, 순환변동치가 가장 클 때가 경기정점, 가장 작을 때가 경기저점이라함
- 전월(기)비가 추세치 전월비를 상회하면 확장국면, 하회하면 수축국면, 통과할 때가 경기전환점이 됨. 전월비가 가장 큰 시점과 가장 작은 시점은 추세·순환변동치의 변곡점일뿐 경기전환점과는 무관
- 전년동월(기)비도 전월비처럼 추세치 전년동월(기)비와의 관계에 의하여 국면 및 전환점을 판정하며, 전년동월(기)비의 정·저점은 경기전환점과는 무관하며, 변곡점의 위치, 국면지속기간의 크기 등에 따라 그 위치가 정해짐

경기종합지수

- 경기종합지수는 경기변동의 국면·전환점과 속도·진폭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경기지표의 일종으로, 지역경제의 각 부문을 대표하고 경기 대응성이 양호한 경제지표들을 선정한 후 이를 가공·종합하여 작성
- 충청남도에서는 우선적으로 동행종합지수를 작성·발표하고, 순차적으로 선행종합지수와 후행종합지수를 작성·발표할 계획으로 있음
 - **동행종합지수** : 공급측면의 생산지수, 노동투입량(비농가취업자수) 등과 수요측면의 수출액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 **선행종합지수** : 투자관련 허가·수주지표나 재고율, 통화량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에측에 이용
 - **후행종합지수** : 재고, 금리 등 실제 경기순환에 후행하여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표로 현재 경기의 사후 확인에 이용

충남 경기종합지수 작성 계량기법

- 지역별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하기 위한 계량기법은 통계청의 작성방법을 기본 틀로 하고 있음

1) 개별 구성지표의 비경기적 요인 제거

- 경기종합지수의 작성에는 경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구성지표를 선정한 후, 첫 번째 단계로 개별 시계열자료의 비경기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계절요인은 X-12-ARIMA방법으로, 불규칙요인은 불규칙정도에 따라 3 또는 6개월 이동평균 방법을 이용하여 조정
- ① 개별 구성 지표들의 비경기적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계절조정(X-12-ARIMA) 및 불규칙조정(3또는6개월말항 이동평균)을 하여 추세순환계열($X_{i,t} = T_{i,t} \times C_{i,t}$)을 산출
- ② 구성 지표별로 전월대비 증감율(대칭변화율($Y_{i,t}$): symmetric percent changes)을 산출

- ㉓ 수준지표(level indicators)인 경우

$$Y_{i,t} = \frac{X_{i,t} - X_{i,t-1}}{X_{i,t} + X_{i,t-1}} \times 200$$

- ㉔ 비율지표(ratio indicators)와 영(0) 또는 음수가 포함된 경우

$$Y_{i,t} = X_{i,t} - X_{i,t-1}$$

여기서, $i = 1, 2, \dots, N(\text{구성지표}), \quad t = 2, 3, \dots, T(\text{시점})$

2) 구성지표의 표준화

- 구성지표의 표준화란 구성지표들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순환진폭(cyclical amplitude)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각 구성지표의 순환진폭이 평균적으로 모두 같아지도록 조정하는 것
- ③ 진폭(변동폭)이 큰 하나의 구성 지표에 의해 종합지수가 좌우되지 않도록 각 구성 지표의 대칭변화율($Y_{i,t}$)을 절대치평균인 표준화인자(S_i)로 나누어 표준화증감율($Z_{i,t}$)을 산출

$$Z_{i,t} = \frac{Y_{i,t}}{S_i} \quad \text{단, } S_i = \frac{\sum_{t=2}^T |Y_{i,t}|}{T-1} \quad (\text{표준화인자})$$

- ④ 표준화증감율($Z_{i,t}$)의 합을 구성지표수로 나누어 평균증감율(AC_t)을 산출

$$AC_t = \frac{\sum_{i=1}^N Z_{i,t}}{N}$$

3) 지수화

- 동행종합지수는 매월의 평균증감율을 누적하여 원지수를 계산한 뒤, 기준년도(2000년)로 조정하여 산출
- ⑤ 매월의 평균증감율(AC_t)을 누적하여 지역별 동행종합지수 원지수(RCI_t)를 산출(시작년월=100)

$$RCI_t = RCI_{t-1} \times \frac{200 + AC_t}{200 - AC_t} \quad \text{단, } RCI_1 = 100$$

- ⑥ 동행종합지수 원지수(RCI_t)를 기준년도(1995년)로 조정한 지역별 동행종합지수(CI_t)를 산출(기준년도=100)

$$CI_t = \frac{RCI_t}{BASE} \times 100 \quad \text{단, } BASE \text{는 기준년도의 } RCI_t \text{의 평균}$$

4) 경기순환 판단을 위한 보조지표

- 동행종합지수는 경제성장에 따른 증가추세와 경기의 상승·하강 움직임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증가추세를 제거하고 경기의 상승·하강 움직임만을 추출하여 순환변동치를 산출
- 우리나라는 과거 고도성장의 영향으로 강한 추세를 가지고 있어 동행종합지수의 보조지표로서 추세를 제거한 순환변동치를 산출하여 현재의 경기국면과 전환점을 보다 명확하게 측정·판단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
- ⑦ 지역별 동행종합지수(CI_t)는 상승추세가 너무 강하여 지수 상에서 경기속도만 파악할 수 있으므로, 국면 및 전환점 등 경기순환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순환변동치를 산출

$$C_t = \frac{CI_t}{T_t} \times 100$$

여기서, T_t 는 H-P 필터 방법으로 산출

1400년전 대백제의 부활

2010 세계대백제전
2010 Great Baekje World Festival

2010 09
18
-
10
17



유네스코한국위원회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0
대충청방문의해

Korea
Sparkling

충청남도 부여군 (사비)
공주시 (웅진)

세상에는 닮은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 똑같진 않습니다.
“인공토양 대표 브랜드 **BIO PARASO**” 품질의 자부심이 다릅니다.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하여
그 성능이 더욱 향상된
바이오 파라소 시스템

본 제품은 판매시 일정 금액이 환경보호운동에 사용됩니다.

시스템 구성도



2000년 서울환경상 환경기술부문 수상

시스템 특징

- 양이온교환용량 향상으로 식물생육 문제 완전 해결
- 맞춤형 인공토양으로 다양한 식재기반 조성 가능
- 자연스런 색상과 기능성을 갖춘 표토층
- 하중문제 완전 해결
- 100% 무기질 인공토양

바이오 파라소 시스템은 기존의 획일적인 시스템과는 달리, 각각의 용도와 식물에 따라 다양한 시스템으로 구분되어 사용되는 맞춤형 인공지반녹화 시스템입니다.

국내특허 등록 제 0340624 호
국내특허 등록 제 0428513 호
국제특허 출원 NO.01143467.8